

## 송명흠(宋明欽, 1705-1768)

동국 18현의 한 명인 송준길(宋浚吉)의 현손으로, 동생 송문흠(宋文欽)과 더불어 당시 송씨 문중의 쌍벽으로 불리었다. 자는 회가요, 호는 역천(櫟泉)이며,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이재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는데, 이재는 김창협(金昌協)의 학통을 이은 수제자로서 노론 내 낙론학맥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영조 치세 연간 노론 벽파의 중심인물로 활동한 문신이다. 동문수학한 미호 김원행과는 막역한 강학지우로 유명하다. 혈족 관계로 보면, 김원행의 생모가 송명흠의 조부인 송병원의 딸이기 때문에 송문흠은 김원행의 외가쪽 사촌 동생뻘이다.

대과에 응시하지는 않았고, 뒤에 학행으로 추천을 받아 충청도도사·지평·장령 등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754년(영조 30) 특별히 서연관(書筵官)을 제수하여 별유(別諭)를 내리기까지 하였으나 글을 올려 사양하였다. 1755년 옥과현감(玉果縣監)이 되었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삼년상을 마친 뒤, 집의·승지·참의 등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역시 글을 올려 거절하였다. 만년에 정국이 다소 안정되면서, 1764년 부호군에 임명되고 찬선(贊善)으로 경연관이 되어 정치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영조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여 파직되었다.

<국역 영조실록>에 따르면, 송명흠은 1763년(영조39) 3월 5일의 상소에서 비유한 ‘적불(赤芾)’이란 말로 영조의 노여움을 샀는데, 이에 대해 계속해서 초선(抄選)들의 상소가 잇따르자 1764년 5월 17일의 기사에서 영조는 “송명흠의 적불이란 말도 역시 산야(山野)의 당론”이라고 단정 지었다. 이후 박세채의 문묘 종향 문제로 당론이 이어지자 11월 28일에는 신경(申暲)·송명흠·홍계능(洪啓能)·김양행(金亮行)을 모두 초선에서 빼라고 명하면서 당습(黨習)은 망국의 단서인데 그 원인은 산림의 선비에게서 말미암았다고 글을 지어 유지하였다. 그리고 11월 30일에 송명흠, 김양행, 홍계능을 서인으로 만들었다.

적불(赤芾)은 붉은 무릎 가리개로, 대부(大夫)이상의 관원은 적불을 착용하고 초헌(輶軒)을 탔는데, <시경(詩經)> 조풍(曹風) 후인장(候人章)에 조(曹)나라 군주가 군자(君子)를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하였으므로, 대부가 5인인 제후(諸侯)의 제도를 무시한 채 그 복색(服色)을 한 자가 수백 명이었으며 여진 이는 도(道)를 지키느라고 도리어 빈천(貧賤)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소인들이 조정에 가득한 것을 풍자한 말이다.

송명흠이 올린 상소에 “근습(近習)에 정(情)을 두거나 인척(姻戚)을 사사로이 좋아한다면 장차 덕망 있는 이를 임명하는 관작이 모두 사인(私人)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것이니, 사신이 비평한 바에 ‘저 소인들은 적불(赤芾)을 한 자가 수백 명인 어리고 예쁜 소녀들이야 굶주리는 수밖’이라고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나간다면 온갖 일이 그러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적불 두 글자를 쓰고 있다.

이 소에 대해 영조가 “내 비록 덕이 없지마는 어찌 조후(曹侯)와 같은 데 이르렀겠느냐?”라고 역정을 내며, 대신·승지·옥당을 불러 각각 소견을 진달하라 명하였는데, 영의정 신만(申晩)은 임금이 진정하기를 청하고,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은 말하기를, “이것은 문장을 끊어서 뜻을 취할 것이니, 반드시 무심코 인용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변론을 하였고, 승지와 여러 옥당이 대답한 것도 모두 대신의 말과 같았기 때문에 임금의 뜻이 조금 풀려 이에 비답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 사지(辭旨)가 몹시 엄중하였다고 기록에 전한다.

애초에 영조가 송명흠을 불러들일 적 기사가 <영조실록>에 실려 있는데, 군신 간에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송명흠이 “격물(格物)·치지(致知)의 공부가 극진하지 못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공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의 덕을 광구(匡救)하는 자는 충(忠)이고 임금의 잘못에 아부하고 순종하는 자는 충이 아니니, 이것을 미루어 나가면 좋아하고 싫어함이 저절로 공정해질 것입니다. 무릇 진언(進言)에 대해서는 말이 쓸 만하면 쓰고 쓸 수 없으면 쓰지 않을 뿐입니다. 어찌 갑작스레 벌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임금이 회답하기를, “천천히 강구(講究)해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말을 쓰지 않았다 하여 떠나지 말라. 내가 경연관(經筵官)을 얻은 것이 마치 밝은 촛불을 얻은 것과 같으니, 모름지기 상세히 문의(文義)를 진달하라.”

실상 앞의 상소문에서 직언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군신간의 후은의 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그 직언의 내용은 주자가 효종에게 올린 <무신봉사>의 격물치지의 학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 군신간의 후은의 정이 도타울 때에도 ‘격물치지’를 말하고 상소문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격물치지’의 학문에 힘쓸 것을 당부한 내용으로 전후가 수미일관하다.

그러하기에 상소문에 대한 평에서 사관들이 이렇게 적고 있다. “송명흠은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현손(玄孫)으로서 일찍이 가정의 학문을 이어받았으며 글을 읽고 몸을 닦아 사림(士林)이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정초(旌招)를 누차 내렸으니 뜻을 지키고 나오지 않더니, 은례(恩禮)가 갈수록 융성해지자 감격하여 조정에 나왔다. 전석(前席)에 출입하면서 애연히(藹然)히 서로 믿음이 있었는데, 마침내 처음의 예우(禮遇)를 계속하지 않기에 이르자 진소(陳疏)하고 지레 돌아감으로써 그 쓰임을 다할 수 없게 되었으니, 사론(士論)이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

저서에 《역천집》이 있다.

## 송문흠(宋文欽, 1710-1752)

선병삼

동국 18현의 한 명인 동춘당 송준길(宋浚吉)의 4세손으로, 형 송명흠(宋明欽)과 더불어 당시 송씨 문중의 쌍벽으로 불리웠다. 자는 사행(士行), 호는 한정당(閒靜堂)이다. 형과 마찬가지로 이재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는데, 이재는 김창협(金昌協)의 학통을 이은 수제자로서 노론 내 낙론학맥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영조 치세 연간 노론 벽파의 중심인물로 활동한 문신이다.

조부는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역임한 송병원(宋炳遠)이고, 부친은 송요좌(宋堯佐)이다. 생조는 원래 상주목사(尙州牧使)를 지낸 송병익(宋炳翼)인데, 금산군수(錦山郡守)를 지낸 묵옹(默翁) 송병원(宋炳遠)에게 출계하였다. 모친은 파평윤씨(坡平尹氏)로 호조정랑(戶曹正郎)을 지낸 윤부(尹扶)의 딸이다. 2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733년(영조 9) 계축식년사마시(癸丑式年司馬試)에 진사 2등으로 합격하였으나, 관직보다 학문에 더 뜻을 두어, 형 송명흠과 함께 회덕(懷德)의 비래암(飛來庵)에 뜻 있는 선비들을 모아 <대학(大學)>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후에 장릉참봉(長陵參奉)에 보임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그 뒤 익위사시직(翊衛司侍直)에 임명되었을 때 조태구(趙泰耆)의 아들 조현빈(趙顯彬)이 마침 세마(洗馬)가 되었으므로 더불어 동료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자리를 버리고 떠났다. 왜냐하면 조태구는 소론의 영수로서 경종 치세 때 일어난 신임옥사에서 노론 4대신 주살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얼마 후에 다시 익위사부수(翊衛司副率)이 되었으나 조현빈이 그 자리에 계속 있자 역시 관직을 버리고 떠난다.

1743년(영조 19) 목곡(牧谷) 이기진(李箕鎭)이 전랑(銓郎)이 되어 맨 먼저 그를 동몽교관(童蒙敎官)에 발탁하여 일 년여 동안 재직하게 하였으나, 가르칠 어린이들이 없어 곧 벼슬을 사양하였다. 1747년(영조 23) 종부시주부(宗簿侍注簿)에 올랐다가 형조좌랑(刑曹佐郎)이 되었으며, 다시 문의현령(文義縣令)이 되었다. 1752년(영조 28) 12월 15일, 향년 43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송문흠은 예서를 잘 쓰는데, 특히 이인상(李麟祥)과의 예술적 교분이 도타웠다. 이인상은 3대에 걸쳐 대제학을 낳은 명문 출신으로 1735년(영조 11) 진사에 급제하였지만 증조부 이민계(李敏啓)가 서자였기 때문에 본과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는 서출이었지만 명문 출신답게 시문과 학식이 뛰어나 당시 문사들의

존경을 받았고 후대의 문인과 서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당시에 그의 전서체에 대하여 기(奇)하다고 하고 혹은 허(虛)하다고도 하였는데, 김정희(金正喜)는 그 문자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각은 200년 이래로 따를 자가 없다.”고 상찬하였다.

이런 점에서 형인 송명흠이 유학하는 선비에 가깝다면 송문흠은 그 예술적 역량이 출중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그가 남긴 ‘한정당기’에서도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한정당집>은 양이 많지 않은데, 조카인 송시연의 발문에 의하자면 상당량의 글이 유실되었을 것이다.

그가 당호를 한정당이라고 지은 것은 도연명에게서 따온 것이다. 그는 ‘한정당기’에서 도연명의 일생을 “민면사세 우애한정(黽勉辭世 偶愛閒靜)” 8자로 요약하였는바, 그 뜻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자 몸부림치고, 한정한 삶을 사랑하네’라는 데에서 따온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부귀공명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고 서로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이를 좇지 않고 도연명이 그랬듯이 세상에 나아가 나를 드러내고 명예와 부귀를 얻고 세상에 큰 이름을 드리우는데 온 정신을 두기 보다는 유유자적하며 천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리하여 한정당이라고 자호한 것이다.

송문흠을 후대에 서예가이자 문장가라고도 평하는 데는 아마 이와 같은 그의 성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문집으로는 8권 4책의 『한정당집(閒靜堂集)』이 전한다.

##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선병삼

송병선은 송시열(宋時烈)의 9세손이다. 우암 송시열은 효종과 동심동력하여 설욕을 꾀고자 북벌을 준비한 당대의 거유로 소중화(小中華), 존화양이(存華攘夷) 등 춘추의리(春秋義理)의 화신이였다. 도학에는 정암 조광조요, 학문에는 퇴계 이황이요, 성리에 울곡 이이라고 하는데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의리에 관해서는 우암 송시열을 으뜸으로 삼는다. 송병선은 1905년 을사늑약에 비분강개하며 스스로 자결한 순국지사이다. 이는 조상의 의리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자는 화옥(華玉)이며 호는 연재(淵齋) 또는 동방일사(東方一士)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대전시 회덕(懷德)에서 출생하였으며, 송면수(宋勉洙)의 맏아들로서 참의 송달수(宋達洙)와 송근수(宋近洙)의 종질이고, 송병순(宋秉珣)은 그의 동생이다. 큰아버지인 송달수에게서 송병순과 함께 성리학파 예학을 배웠다. 그는 송달수가 죽은 뒤 집안의 학문이 기울어질 것을 염려해 학문에 더욱 힘썼으며, 작은아버지 송근수와 외삼촌 이세연(李世淵)의 지도를 받았다.

이는 송시열 - 권상하 - 한원진 - 송능상 - 송환기, 김정묵 - 송치규 - 송달수, 송근수 - 송병선, 송병순으로 이어지는 학맥이다. 송달수는 조선후기 성리학계를 이분하였던 호락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성리학자들이 스스로 본연의 연구에 매진할 것을 강조한 순수 학문적 입장을 강조했고, 송근수는 1882년 좌의정 재임 시 정부의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사직소를 올려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였다. 1884년 의제변개(衣制變改)가 단행되자 송병선이 ‘전통 질서 중의 하나인 복제를 함부로 바꿀 수 없음’을 역설하면서 위정척사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이 또한 그가 계승한 가학 및 학통의 전통이다.

송병선은 국운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선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세를 이루고, 사상적 무장을 확대하고자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이를 위하여 유림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조선을 사상적으로 지탱해 온 성리학적 유교질서를 전파하고, 정신적 무장을 강조하면서 진취적인 기상을 불어넣었다. 1867년 옥천 이지당(二止堂)에서의 강회활동을 시작으로 기국정, 고암서당 등지에서 강회를 개최하고, 성주의 노강 등지에서 향음례를 행하고, 무주 구천동의 서벽정을 중건하여 강학하기도 하였다.

태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그 뒤 경연관(經筵官), 서연관(書筵

官), 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 등에 차례로 선임되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1881년에는 당시 개선할 시무책 8개조를 건의한 신사봉사(辛巳封事)를 올렸다. 이는 성리학의 정진, 언로의 개방, 국가정통성 확립, 국가기강 확립, 재정절약, 인사정책 일신, 조세경감, 왜세 척결 등 8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1조와 8조는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대의를 밝히고 있는데, 위정을 위해서는 성학에 힘쓸 것을 주장하여 국왕으로부터 철저히 성리학으로 무장하여 전 국민이 사상적으로 절대 동요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척사의 대상으로는 왜(倭)와 사교(邪敎)를 꼽고 있는데,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의 시각에서 일제를 비롯한 서구사상 일체에 대한 척결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두 차례의 <청토흉적소(請討凶賊疏)>를 올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답이 없자 상경하여 고종을 알현하고 을사오적을 처형할 것, 현량(賢良)을 뽑아 쓸 것, 기강을 세울 것 등의 십조봉사(十條封事)를 올렸다. 여기서 송병선은 각국 공사관에 우리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것과 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군대의 양성을 주장하였다. 봉사의 핵심은 무엇보다 일제에 맞설 수 있도록 내수를 급히 정비하고, 군사력을 양성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자는 것이었다.

그 후 을사오조약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려 하였으나 경무사 윤철규(尹喆圭)에게 속아 납치되어 대전으로 호송되었다. 당시 일제는 송병선의 서울 상경, 국왕 면담, 선생을 추종하는 제자그룹 등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12월 28일 대전으로 압송되어 온 다음날 송병선은 70세의 노구로 조국을 위하여, 후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다가 끝내 유소(遺疏)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마지막 상소이자 제자들에 대한 행동 지침이 되었다. 그리고 음독한 후, 후손과 제자들을 모아 ‘도의 수호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는 마지막 유지와 함께 다음날 숨을 거두었다.

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珣)·김장생(金長生)·송시열 등 대선비의 문집에서 좋은 글귀를 뽑아서, 『근사록(近思錄)』과 같은 범례를 좇아 책을 지어 『근사속록(近思續錄)』이라 하였다. 그 밖의 저서로도 『연재집(淵齋集)』과 『근사속록(近思續錄)』, 『패동연원록(溟東淵源錄)』, 『무계만집(武夷漫集)』, 『동감강목(東鑑綱目)』 등 53권이 있다.

## 송병순(宋秉珣, 1839-1912)

선병삼

송병순은 송시열(宋時烈)의 9세손으로, 형 송병선은 1905년 을사늑약에 비분강개하며 스스로 자결한 순국지사이다. 9세조인 우암 송시열은 효종과 동심동력하여 설욕을 꾀고자 북벌을 준비한 당대의 거유로 소중화(小中華), 존화양이(存華攘夷) 등 춘추의리(春秋義理)의 화신이였다. 조선유학사에서 도학에는 정암 조광조요, 학문에는 퇴계 이황이요, 성리에 울곡 이이라고 하는데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의리에 관해서는 우암 송시열을 으뜸으로 삼는다.

형 송병선은 1905년 을사늑약을 반대하며 자결하였고 동생 송병순은 1910년 경술국치 후에 두문불출하며 망국의 슬픔을 억누르다가 마침내 1912년 자결하여 순국하였다. 두 형제가 유학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권을 빼앗김에 분연히 일어나 순국하였으니 가학이요 학통을 계승한 것이 이와 같았다.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자는 동옥(東玉)이며 호는 심석재(心石齋)이다. 형 송병선과 함께 큰아버지 송달수의 문하에서 성리학과 예학을 수학했으며, 송달수의 사후에는 작은아버지 송근수와 외삼촌 이세연(李世淵)의 지도를 받았다. 이는 송시열 - 권상하 - 한원진 - 송능상 - 송환기, 김정묵 - 송치규 - 송달수, 송근수 - 송병선, 송병순으로 이어지는 학맥이다.

1865년(고종 2)에 서원 철회령이 내려 만동묘가 헐리게 되자 춘추대의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훼손하지 말 것을 상소하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신종을 기리기 위하여 세웠다는 만동묘는 송시열이 유명으로 수제자 권상하에게 신종과 의종을 제사 지낼 사당을 건립하라고 하여서 세워졌다. 1865년(고종 2년) 조정에서는 대보단에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만동묘를 철폐했다가 1873년(고종 10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자 이듬해 왕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다 1907년에는 우리 의병을 토벌하기 위하여 일본군이 환장암과 운한각을 불태우고 이듬해에는 만동묘를 폐철하는 동시에 만동묘에 소속된 재산을 국가와 지방 관청에 귀속시킨다. 이런 상황에서도 1910년 송병순(1839~1912) 등이 존화계를 조직하여 제사를 이어가는 등 유림들의 주선으로 비밀리에 제향이 이어졌으나, 1940년부터는 일제의 강압으로 영영 끊기게 되었다. 여기서도 송병순의 존화양이의 춘추의리 정신을 잘 알 수 있다.

1888년(고종 25)에는 의정부의 천거로 의금부도사에 임명되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1894년(고종 31)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찾아오는 손님도 만나지 않는 등 칩거하였다. 동학군이 봉기하자 향약을 보급하여 향인을 교화했으며,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내려지자 자정(自靖)의 생활로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데만 전념하였다.

1903년 학행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신망을 받아 고종이 홍문관서연관(弘文館書筵官)에 임명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 뒤 영동군 학산면 활산에 강당을 세우고 많은 문인들을 지도·계발하여 천리를 밝히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정력을 기울였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나라를 위하는 충성과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순국하는 길밖에 없다.” 하고 그 해 9월 5일 강당 위 서산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투신자살하려고 하였다. 그 때 마침 문인 김용호(金龍浩)가 뒤에서 껴안아 실패하자, 그 뒤 두문불출하고 망국의 슬픔을 시로써 달래었다. 이 때 영동군 양산의 일본 헌병대가 은사금을 가져오자 이를 질책하여 거절하였다. 1912년 일제가 회유책으로 경학원(經學院) 강사에 임명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대의를 지켜 순국할 것을 결심, 유서를 남긴 뒤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저서로는 15권의 문집과 『독서만집(讀書漫錄)』, 『학문삼요(學問三要)』, 『사례축식(四禮祝式)』, 『용학보의(庸學補疑)』, 『주서선류(朱書選類)』 등이 있다.



## 신응구(申應築, 1553-1623)

선병삼

성혼과 이이의 문하에서 수학했는데, 특히 성혼을 위한 신원에 적극적이었다. 김상헌이 신응구 묘갈명에서 “성 문간공(成文簡公)이 가문에 전래된 정대한 학문으로 우계(牛溪) 위에서 학도들을 가르쳐 성취한 제자들을 쉽게 다 셀 수 없었는데, 공자(孔子)가 이른 것처럼 문인이 더 친근해졌다는 것에 접근한 자에 있어서 고령(高靈) 신공(申公)이 가장 선배라고 하겠다.”라는 평가는 여실하다.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자는 자방(子方)이고 호는 만퇴헌(晩退軒)이다.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벌(穰)이며 어머니는 해평윤씨(海平尹氏)로 의형(義衡)의 딸이다.

1580년(선조 13) 천거로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1582년에 사마시에 합격, 학문에만 정진하다가 천거로 장원(掌苑)이 되었다. 1597년 어머니를 여의고 삼년상을 마친 뒤 다시 관계에 들어가 형조정랑, 한성부서윤, 이천부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1602년 무고를 당하자 사직하였다가 다시 충주목사, 삭녕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10년(광해군 2) 공조참의가 되었고 그 뒤 양주목사를 역임하고, 1613년 이이첨(李爾瞻) 등이 폐모론을 주장하자 관직에서 물러나 충청도 남포(藍浦)로 낙향하였다. 그 뒤 조정에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인조반정 후에 형조참의·동부승지·좌부승지 등을 거쳐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 춘천부사를 역임하였다.

<국조인물고>에 실린 신응구의 묘갈명은 김상헌이 만년에 쓴 내용인데, 글 중에 “나는 공과 더불어 어렸을 때부터 장년에 이를 때까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일찍부터 기풍을 사모하였는데, 3대 동안 서로 주선하며 백여 년을 지내왔으므로 공이 나를 알아준 것이 기쁨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스스로 공을 안다고 여기었다.”라는 대목을 보건대, 신응구를 잘 알려주는 글로 사료된다. <인조실록>에 실린 신응구의 <졸기>가 폄하의 뜻이 비취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김상헌은 명문에서 신응구의 삶을 이렇게 적고 있다.

공의 모습을 바라보니, 한 겨울의 눈 속에 늠름한 송백(松栢)처럼 우뚝 서 있었고 공의 중심을 살펴보면 이치가 분명하고 의리에 합치되어 얼음이 녹듯이 화평했도다. 약관(弱冠)에 향양(向陽)의 마을에 찾아가 배워 스승과 제자가 되었으니, 70명의 제자가 공자(孔子)를 따른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 세상에 어려움을 만나 조금만 시험해 보고 항상 곤궁하게 살았도다. 하늘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결국 창생의 한을 남기었도다. 아! 매우 슬프도다!

이치가 분명하고 의리에 합치되었다는 것은, 앞서 최유원(崔有源) 등이 왕자(王子) 임해군(臨海君)이 반역을 꾀하였다고 고변하였지만 실상이 매우 모호하였기 때문에 공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끌어넣어 후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신옹구를 빙자하여 말하고 공신록(功臣錄)에 기록하였다. 이는 신옹구가 전에 두 번이나 광해군의 사부를 역임한 적이 있었음도 고려한 조치였다. 신옹구가 이를 부끄럽게 여겨 누차 상소를 올려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그가 아들에게 유서(遺書)를 써서 주었는데, 그 유서에 ‘내가 죽은 뒤에 공신록에 나의 이름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장사를 치를 적에 곧바로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양의 의사를 관철시켜 나의 뜻을 밝히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로 하여금 지하에서 거둬 죄를 짓게 할 것이다.’는 대목에서 여실히 보인다.

한 겨울 눈 속에 늪름한 송백(松柏)처럼 우뚝 서 있었다는 그 기상은, 김상헌이 “공이 젊어서부터 중대한 명망을 지니어 자신감이 적지 않았다. 대체로 공의 재주와 견식이 과감하고 민첩하여 고상한 의논이 종횡으로 넘쳐흘렀으므로 필시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공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우 뚜렷한 견해가 있다고 여기었으므로 세상에 행세할 적에 꺼리는 자와 인정하는 자가 없이어 평소 쌓은 바를 펼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식한 사람들이 너나 없이 매우 애석해 하였다.”라는 대목에서 밝히고 있으며, 글의 말미에 “아 슬프도다.”라고 왜 했는지도 대략을 가늠할 수 있겠다.

저서로는 『만퇴집』이 있다.

## 신익전(申翊全, 1605-1660)

선병삼

조선 4대 문장가의 한 명이요, 인조반정의 주역으로 인조 묘정지신의 한 명인 상촌 신흠(申欽)의 아들이다.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자는 여만(汝萬)이고 호는 동강(東江)이다.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로 절도사 제신(濟臣)의 딸이다. 김상헌(金尙憲)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국조인물고>에 박세채가 쓴 신익전의 <비명>이 실려 있는데 내용이 상세하다. 신익전은 어려서부터 이미 순박하고 성실하여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 살 때에 시골에서 부친 신흠을 모시고 있을 적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방문하여 그가 어른처럼 응대(應對)하고 주선(周旋)한 것을 보고 누차 장려(獎勵)하였는데, 이때부터 반드시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 송독하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고 한다. 또한 태극도(太極圖)의 부권(副圈)을 보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음(陰) 가운데 양(陽)이요, 양 가운데 음이다.” 하니, 신흠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한다.

1628년(인조 6) 학행으로 천거되어 재랑(齋郎)이 되고, 이어 검열·정언·지평 등을 지냈다. 163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는데, 그 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 청나라 사신이 와서 “신익전과 그의 큰형인 신익성(申翊聖)이 명나라를 도울 뜻이 있었다.” 하여 몇몇 재신(宰臣)들과 함께 끌고 간 것이다. 큰형 신익성은 호란(胡亂)을 당했을 때 의리(義理)를 세움이 매우 컸고, 삼전도(三田渡)에 비(碑)를 세울 때에는 비에 전서(篆書) 글씨 쓰는 것을 힘써 거절하였다. 신익전은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기자묘(箕子廟)에 들러 제사지낼 적에 매우 기뻐할 만한 말을 주고받았는데, 당시 이계(李桂)가 청나라의 포로(捕虜)로 잡혀가서는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까지 무함(誣陷)하였다. 신익전이 이계의 간악함을 말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와서는 부응교·사인(舍人)·사간을 거쳐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지냈다.

1639년에는 서장관으로 연경(燕京)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효종 때 호조·예조·병조의 참판 등을 지내면서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그 뒤 한성부의 우윤과 좌윤을 거쳐 도승지에 이르렀다.

지방관으로 나가 선정을 많이 베풀었는데,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나갔을 적에,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아마도 내가 신명을 바칠 곳이라.” 하고 숨은 장정을 모두 찾아내어 여러 군대의 궐원(闕員)을 보충하고 경내(境內)를 독려하여 기한 내에 조적(糶糶, 환곡(還穀)을 꾸어 주고 받아들이는 일)의 환곡(還穀)을

수납케 한 것이 거의 수만 곡(斛)이었는데도 감히 뒤지는 자가 없었으며, 죽었거나 떠난 곳으로 이사하여 절가(絶家)된 경우가 있으면 번번이 모곡(耗穀, 소모될 것을 감안해서 더 받는 곡식)으로써 상환케 하고, 학교를 세워서 제생(諸生)들을 모아 학업을 장려하여 온 고을이 잘 다스려졌으므로 돌아올 때에는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송덕(頌德)하였다 한다.

인조를 이어 즉위한 효종 2년에 김자점의 옥사에서 조귀인(趙貴人)과 김자점(金自點)이 사사되는 상황에서 신익전은 그의 형세가 혐의적이고 처지가 가까워서 자칫하면 위험한 의심을 받을 뻔했지만 끝내 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논자들이 “이때에 능히 충신으로서 스스로를 보전한 이로는, 공이 충익공(忠翼公) 이시백(李時白)과 함께 아름다움을 나란히 할 수 있다.” 하였다. 이시백은 그의 아우 이시방이 김자점과 가깝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았다.

박세채가 이를 두고 “만일 쉬움과 어려움을 따진다면 또 분별할 바가 있으니, 이는 어찌 공이 평소에 겸공(謙恭)하고 근확(謹確)했던 증험이 아니겠는가? 아! 훌륭하도다.”라고 평하면서 신익전의 평소 행실을 밝히길, “염정(恬靜)을 숭상함에 뜻을 두어 나아가 벼슬하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왕실(王室)과 인척 관계를 맺기에 미처서는 더욱 삼가하여, 비록 조정에서 벼슬하고 있으면서도 담담하기가 마치 초야(草野)에 거처하고 공허(空虛)한 데로 도피하는 것 같았으며, 기미(幾微)를 보고 간략함을 지켜 한결 같이 옛 전적(典籍)에 종사하였으므로, 무릇 속세의 현회(顯晦)·장부(藏否)는 죽히 그의 마음을 엿매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주역』을 애독하여 깊이 연찬하였고, 문장에 능하였으며 글씨에도 뛰어났다. 저서로는 『동강유집』 19권 3책이 있다.

## 신정하(申靖夏, 1681-1716)

선병삼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자로 숙종의 묘정에 배향된 김창협은 낙론의 거목으로 도학과 문장에 출중하였는데, 신정하의 문집은 적은 편수지만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글들이 빼곡하다. <제농암선생문(祭農巖先生文)>에서 신정하는 김창협이 범순부(范純夫)의 경학, 구양수(歐陽守)의 문장, 주자(朱子)의 의리(義理)(철학)를 한 몸에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스승에 대한 존경과 긍지의 소회를 충분히 살필 수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자는 정보(正甫)이고 호는 서암(恕菴)이다. 증조부는 신준(申峻)이고 조부는 신여정(申汝挺)이며, 아버지는 영의정 신완(愼完)이다. 어머니는 황해도관찰사 조원기(趙遠期)의 딸이며 신유(申瑜)에게 입양되었다.

1705년(숙종 3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설서(說書)·부교리 등을 역임한 뒤, 1715년 헌납(獻納)으로 있을 적에 유계(兪棨)의 <가례원류(家禮源流)>를 발간하면서 발문을 쓴 정호(鄭澐)가 윤증(尹拯)을 비난한 일 때문에 윤증·유계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사건에 연루되었다.

일찍이 효종 때 유계(兪棨)가 주자의 <가례>에 단마다 해석을 붙여 <가례원류>를 편찬했으나 미처 간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 뒤 1713년(숙종 39)에 당시 좌의정 이이명(李爾命)이 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저자의 손자인 유상기(兪相基)가 용담현령(龍潭縣令)으로 있으면서 간행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간행하지 못하고, 이 실정을 왕에게 고하여 마침내 1715년에 권상하(權尙夏)의 서문과 정호(鄭澐)의 발문을 추가하여 출간되었다. 그런데 정호의 발문 가운데 소론 윤증(尹拯)이 스승 송시열(宋時烈)을 등지고 당쟁을 조장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정계에 파문을 크게 일으켰다.

신정하의 부친 신완은 박세채와 윤증의 문도인 관계로 그도 애초에 비판의 입장에 섰다가, 후에 숙종 42년에 올린 상소문에서는 <가례원류>의 서문과 발문을 쓴 권상하와 정호를 벌 줄 것을 주장한 소론 이진유의 부당함을 누차 상신하고, 유상기의 귀양과 유봉오의 정거를 철회할 것을 청한 것으로 인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 당했다.

이전에 사헌부에서 관작 삭탈을 주청한 소장에 “전 헌납(獻納) 신정하(申靖夏)는 고(故) 상신(相臣) 이경석(李景奭)의 외손으로서 전에 그 자손들과 함께 변명하는 상소에 참여하였는데, 저번에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일로 한 소(疏)를

바친 것은 그 존양(尊仰)하는 정성이 도리어 전에 원수로 여기던 곳에 있으므로, 마침내 스스로 도리에 어긋나는 지경에 빠졌으니, 청컨대 관작(官爵)을 삭탈하소서.”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신성하의 입장이 전후로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관이 이를 두고, “사헌부(司憲府)에서 전에 아뢰던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임금 이 따르지 않았고, 신정하(申靖夏)는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신정하(申靖夏)는 고(故) 상신(相臣) 신완(申琬)의 아들인데, 젊은 나이에 청요직(淸要職)에 올랐으며 평소에 뜻이 고요하고 소박하며 문장에 능하여 명망이 자자했는데, 한 번의 상소가 임금의 뜻을 거슬러 파직당하고 배척당하여 얼마 안 되어 죽으니, 한때의 명류(名流)가 모두 매우 아까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해동가요(海東歌謠)> 등에 시조 3수가 전하는데 그 중 박세당의 아들로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치는 것을 극간하다가 장살당한 박태보를 기린 시조가 있다. “간사(諫死) 흔 박과주(朴坡州) | 야 주그라 설위마라, 삼백년(三百年) 강상(綱常)을 네 혼자 붓들거다. 우리의 성군(聖君) 불원복(不遠復)이 네 죽긴가 흐노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충간하다 죽고만 전 파주부사 박태보여 서러워 마시게. 조선의 강상을 오직 그대만이 붙들고 지켰네. 어진 임금 오래지 않아 다시 왕후를 불러들인 것은 필시 그대의 죽음으로 그리된 것일세.

저서로는 <서암집(恕菴集)>이 있다.

## 신헌(申愷, 1810-1884)

선병삼

평산신씨는 조선에 상신 8명, 대제학 2명, 판서 20여 명과 많은 무장을 배출하였는데, 대부분 문희공파, 정언공파, 사간공파에서 나왔다. 이 중에서도 정언공파는 영의정 신희(申欽)를 중심으로 하는 문신집안이고, 문희공파는 임진왜란 때의 명장 신립(申砮)을 중심으로 하는 무신집안이다.

신헌은 초명이 관호(觀浩)이고 자는 국빈(國賓)이며 호는 위당(威堂), 금당(琴堂), 우석(于石)이다. 할아버지는 훈련대장 신희주(申鴻周)이며 아버지는 부사 신의직(申義直)으로 전형적인 무관가문에서 태어났다.

신헌은 유장(儒將)이라 불리기도 한다. 어려서 당대의 석학이며 실학자인 정약용(丁若鏞)과 김정희(金正喜) 문하에서 다양한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인 학문을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무관이면서도 학문적 소양이 깊었고, 또 개화파 인물들인姜위(姜緯), 박규수(朴珪壽) 등과 폭넓게 교류하여 현실에 밝은 식견을 갖고 있었다.

1827년(순조 27) 할아버지 신희주의 후광을 업고 별군직(別軍職)에 차출되었다가 이듬해에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순조, 헌종, 철종, 고종조에 걸쳐 중요 무반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헌종 때에는 왕의 신임을 받아 중화부사, 전라우도수군절도사, 봉산군수, 전라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쳐 1849년에는 금위대장(禁衛大將)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헌종이 급서하고 철종이 등극하자 안동김씨 일파에게 배척받아 한동안 정계에서 유리되었다. 헌종이 위독할 때 사사로이 의원을 데리고 들어가 진찰했다는 죄목으로 1849년에 전라도녹도(鹿島)에 유배되었는데, 철종의 배려로 1857년에 풀려났다.

철종 때에는 1861년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고, 이어 형조판서,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우포도대장 등을 두루 지냈다. 고종 초기에도 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형조·병조·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총융사(摠戎使)로 강화의 염창(鹽倉)을 수비하였다. 난이 끝난 다음 좌참찬 겸 훈련대장에 임명되고 수뢰포(水雷砲)를 제작한 공으로 가자(加資)되어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다.

그 뒤 어영대장, 지행삼군부사(知行三軍府事), 판의금부사 등을 거쳐 1874년 진무사(鎭撫使)에 임명되었다. 이 때 강화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해의

요해지인 광성(廣城), 덕진(德津), 초지(草芝) 3진(鎭)에 포대를 구축해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운양호(雲揚號) 사건 이듬해인 1876년에는 관중추부사로 병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권대관(全權大官)에 임명되어 강화도에서 일본의 전권변리대신(全權辦理大臣) 구로다(黑田清隆)와 협상을 벌여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개항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어 점차 세계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불평등조약이었기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조약은 위정척사 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의 협상 전말을 신헌은 『심행일기(沈行日記)』라는 기록으로 남겼다.

유장으로서의 신헌의 면모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정약용의 민간자위전법인 민보방위론(民堡防衛論)을 계승 발전시켜 <민보집설(民堡輯說)>, <용서촬요(戎書撮要)> 등과 같은 병서를 저술하여 자신의 국방론을 집대성시켰다. 또한 김정희로부터 금석학(金石學), 시도(詩道), 서예 등을 배워 현재에는 전하지는 않지만 『금석원류휘집(金石源流彙集)』이라는 금석학 관계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 예서(隸書)에 특히 조예가 깊었다.

지리학에도 관심이 높아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제작에 조력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유산필기(西山筆記)>라는 역사지리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농법에도 관심을 가져 <농축회통(農蓄會通)>이라는 농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1843년(헌종 9) 전라도우수사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해남 대둔사(大菴寺)의 초의선사(草衣禪師)와 교류하면서 불교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었다.

<훈국신조군기도설(訓局新造軍器圖說)>, <훈국신조기계도설(訓局新造器械圖說)> 등을 지었고, 수뢰포, 마반포차, 쌍포합이 등 신무기 개발을 주도하였다.



## 심정진(沈定鎭, 1725-1786)

선병삼

어려서는 박필주(朴弼周, 1665-1748)에게서 배웠다. 박필주는 서울 주변에 세거하면서 서울의 학계를 주도하며 영조의 완론 탕평 체제 속에서도 산림(山林)의 입장을 존중하며 노론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였던 노론 낙론(洛論) 계열 산림이자 학자였다. 과거에 응하지 않고 스승인 김창흡(金昌翕) 아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조선 후기 인성과 물성에 대한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낙론의 이론가로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가 이길보(李吉甫)에게 쓴 편지에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후에 이재(1680-1746)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다. 이재는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영조 연간 의리론(義理論)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에서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이며, 윤봉구(尹鳳九), 송명흠(宋命欽), 김양행(金亮行) 등과 함께 당시의 정국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이간(李柬)의 학설을 계승해 한원진(韓元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낙론의 입장에 섰다. 심정진은 <제미호선생문(祭漢湖金先生文)>에서 사도의 도통을 논하면서 중국에서는 맹자 이후로 이정과 주자를 들고 동방에서는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우암 송시열을 이어서 도암 이재를 들 정도로 추송의 일념과 스승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자는 일지(一志)이고 호는 제헌(霽軒)이다. 아버지는 사증(師曾)이며 박세채(朴世采)가 박태두의 작은아버지뻘 되는 종숙이다. 집안이 대대로 서인 노론계에 속하였다.

1753년(영조 29)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758년 영릉참봉(寧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774년에 다시 부수(副率)로서 세손인 정조를 보살폈고, 특히 경학에 뛰어나 강설(講說)이 좋았다는 칭송을 받았다.

1776년(정조 즉위년)에 중부도사(中部都事), 호조좌랑을 거쳐 회덕현감에 부임하여 송준길(宋浚吉)이 만든 향약을 이곳 주민에게 시행하여 백성들의 교화에 노력하였다. 1781년(정조 5) 병으로 사직한 뒤에는 향약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송준길이 만든 향약을 다시 다듬어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을 상소한 바 있다. 1783년에는 다시 복직하여 호조좌랑이 되고 이어 제용감판관·송화현감을 지낸 뒤, 1785년에는 사어(司禦)를 거쳐 동지중추부사로 오위장을 겸하였다.

심정진의 인물성동이론은 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의 문집인

<제헌집>에 기록된 인물성동이에 대한 논설들을 통하여 낙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예리한 논리들을 만날 수 있다.

<天命之謂性說>에서 ‘사람들이 대동(大同)의 성(性)이 리인데 이는 만물에 품부되기 이전으로서 같은 것이고, 본연의 성은 만물에 이치가 품부된 후로 다르다고 하는데 이는 내 생각과 갈리는 핵심 지점이다. 기질에 섞이지 않는 본연의 성이 어찌 대동의 성이 아니란 말인가? 이미 본연이라고 했으면 품수 받기 이전과 이후의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당시 호론에서 성삼층설에 기반하여 초형기의 대동지성과 인기질의 본연지성을 구분하는 논리에 대하여 낙론의 입장에서 반박하고 있다.

<미호선생언행록(漢湖金先生語錄)>에서는 호락논쟁에 대한 미호의 견해를 알 수 있는 문답이 들어있으며, 그 중에는 진정한 공부에 대한 사제 간의 대화도 들어있다. ‘어느 날 정진(심정진)이 혼자 있을 적에 선생(김원행)이 옛날의 학자들로 가령 공자 문하의 제자들이 스승과 주고받은 논의는 모두 위기지학의 학문으로 인애, 효제, 덕을 닦고 사특한 것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었다. 후세에 문의를 의미를 강설하는 공부와는 차이가 있다. 문의를 따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공자 문하의 제자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했는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 이는 호락논쟁이 단지 이론적인 지적 놀음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려준다고 할 것이다.

저서로는 <제헌집>이 있다.

## 심조(沈潮, 1694-1756)

선병삼

권상하의 만년 제자이다. 권상하는 송시열의 수제자로 제자 가운데 김창협(金昌協), 윤증(尹拯) 등 출중한 인물이 많았으나, 스승의 학문과 학통을 계승하여 훗날 ‘사문지적전(師門之嫡傳)’으로 불렸다. 숙종 연간 1689년에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득세하여 송시열이 다시 제주에 위리안치(圍籬安置) 되고 이어서 사약(賜藥)을 받게 되는데, 그는 유배지로 달려가 스승의 임종을 지켰고 의복과 서적 등의 유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후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괴산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와 대보단(大報壇)을 세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향하였다.

학술적으로 그는 이이-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하고 그의 문인들에 의해 전개되는 이른바 호락논변(湖洛論辨)이라는 학술토론 문화를 일으키는 계기를 주었다. 애초에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논쟁(同異論爭)인 호락논변이 제자 이간(李柬)과 한원진(韓元震) 사이에 제기되자 ‘인성이 물성과 다른 것은 기(氣)의 국(局)때문이며, 인리(人理)가 곧 물리(物理)인 것은 이(理)의 통(通)때문이다.’고 한 이이의 이통기국(理通氣局)설을 들어 한원진의 상이론(相異論)에 동조하였다.

권상하가 죽은 후에 남당 한원진에게 졸업하였다. 그의 족손(族孫)인 심기택(沈琦澤)이 쓴 <묘지명>에는 ‘강문(江門, 한수재 문하)의 만학으로 남당에게 졸업했으며 한수재를 섬기듯이 한원진을 섬겼다’라고 한다. 남당 문하의 고족이자 심조의 문인을 자처한 김근행(金謹行, 1712-?)이 쓴 <정좌와선생행장(靜坐窩先生行狀)>에는 ‘계축년(1733)에 남당 문하에 수개월을 머물면서 천인성명(天人性命)의 근원이나 왕패치란(王霸治亂) 근본에 대하여 논한 후에, 남당 선생은 금세에 둘도 없는 통유이시다. 내가 남당 선생에게 지극한 가르침을 받았다. 후에 거처하는 서실의 편액을 靜坐로 정하고 그 명문과 서액을 남당에게 요청하여 걸었다’라고 적고 있다. 그의 자호인 정좌와는 바로 여기서 연유한다. 권상하의 만년 제자로 한원진에게 졸업했다는 심기택의 <묘지명>은 김근행의 <정좌와선생행장(靜坐窩先生行狀)>과 수미로 연결된다 할 것이다.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자는 신부(信夫)이고 호는 정좌와(靜坐窩)이다. 선조 조최초의 동서분당 때에 서인의 영수로 지목받은 심의겸의 동생 집안으로, 아버지는 심수정(沈壽鼎)이고 어머니는 광주정씨(光州鄭氏)로 도사(都事) 정전창(鄭展昌)의 딸이다.

오십을 넘긴 1747년에 조명리(趙明履, 1697-1756)가 경릉참봉(敬陵參奉)에 추천하였는데, 한원진이 취임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힘써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했다. 이어 가을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으나 오래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사직하고 학문연마와 후진양성에 힘썼다. 김근행이 <행장>에서 ‘선생은 경세(經世)를 자부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백성을 보호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것(保民興學)이 다스리는 큰 법도이며 삼대의 다스림에서 본받을 것은 심법(心法)이니 묵은 자취들을 본받을 것이 없다 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사문의 가르침을 받은 것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으니 안타깝다’라고 적고 있다.

만년에 김포에 우거하면서 중봉 조헌을 모신 우저서원(牛渚書院)에서 신미년(1751)부터 강학을 시작했다. 당시 우저서원에서는 강학을 하지 않았다. 원근의 학자들이 모여 들어 성황을 이루었고 사풍이 진작되었다. 교육 내용은 <소학>과 <가례>를 배운 후에 사서를 학습하였다.

김근행이 <행장>에서 ‘오늘날 선생의 면모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선생의 편지글을 읽어 보아라’고 하였는데, <정좌와집>에 수록된 편지들은 한원진, 윤봉구, 이재 등과 주고받은 인물성동이론에 관한 논학서가 주종을 이룬다. 심조는 인물성동이론에서 호론의 입장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비록 인물성 이론으로 남당의 입장을 견지했지만, 한원진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던 이재와도 상당한 학문적 교류를 나누고 있었다. <묘지명>에 의하면, 심조의 현명함을 이재가 극찬했지만 남당 문화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는 심조의 공명정대한 심사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또한 학술 변론이 점차 파당적 배타성을 갖게 되고, 이론적 변론에만 치우쳐 유학의 본질인 일상공부와 실천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심조가 비록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가 남긴 글들은 인물성동이론을 비롯한 유학에 대한 심도 깊은 사색의 성과들이 즐비하다. 이는 여느 문학지사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한편 김근행은 <행장>에서 심조가 또한 산수를 무척 좋아했다고 적고 있다.

그의 문집에 <도봉행일기(道峯行日記)>가 있다. ‘갑술년 8월 27일’로 시작하는 이 산행기는 그가 죽은 두 해 전인 1754년의 도봉산 일람기를 적은 글이다. 우저서원에서 강을 마친 후에 심조가 제생들에게 도봉서원은 도학의 정신이 남아 있는 곳이고 그곳의 산수가 아름다우니 강학도 하고 산수를 유람하자고 제안하여, 9월 12일에 출발하여 17일에 돌아오는 5일간의 여정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여행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찍듯이 기록한 글들은 당시 도봉서원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과 동시에 심조의 소슬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본래 도봉서원은 1573년(선조 6)에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부임한 남언경(南彦經)이 조광조(趙光祖)의 학문과 행적을 기리는 뜻으로 도봉 서원을 건립하고 이

듬해에 사액(賜額)을 받았다. 이후 도봉 서원은 300여 년간 서울·경기 지역 선비들의 주요 교유처가 되었다. 특히 산수가 빼어나서 선비들이 즐겨 찾는 서원이었다.

문집으로 『정좌와집(靜坐窩集)』이 전한다. 특히 본 문집은 행장과 연보가 있어서 그의 삶과 사상의 내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편리하다.

## 양응수(楊應秀, 1700-1767)

선병삼

도암 이재(李穡, 1680-1746)의 적전(嫡傳)이다. 이재는 김창협(金昌協)의 학통을 이은 수제자로서 노론 내 낙론학맥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영조 치세 연간 노론 벽파의 중심인물로 활동한 문신이다. 그의 문하에 미호 김원행, 역천 송명흠, 녹문 임성주 등 출중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미호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은 조선 후기의 집권 계층인 노론의 혁혁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학통을 잇는 존재가 되어 조야(朝野)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학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는 당숙인 김승겸(金崇謙)에게 입양되어 종조부 김창협(金昌協)의 손자가 되었다.

역천 송명흠(1705-1768)은 의리론(義理論)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인 스승 이재, 윤봉구(尹鳳九), 김양행(金亮行) 등과 함께 당시의 정국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동국 18현의 한 명인 송준길(宋浚吉)의 현손으로, 동생 송문흠(宋文欽)과 더불어 당시 송씨 문중의 쌍벽으로 불리웠다.

녹문 임성주(任聖周, 1711-1788)는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가 되고, 정조 즉위 후 동궁을 보도(輔導)하고 지방관을 지내기도 했지만 평생을 재야에서 학문연구로 여생을 보냈다. 그의 철학은 일원론적 구조 위에서 정초되고 있으며, 이기를 기일원론적 관념으로 통일함으로써 조선시대 성리학의 결정(結晶)을 이루었다. 현상윤은 <조선유학사>에서 임성주를 조선 6대가의 한명으로 꼽고 있다.

김원행, 송명흠, 임성주 등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이재 문하에서 나왔지만 정작 이재 말년의 유훈을 받고, 그 의발을 온전히 지킨 수제자는 이들이 아니고 백수 양응수이다. 양석승(楊錫升)은 <白水集序>에서 이재의 적전[寒泉之嫡傳]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상영(李商永)은 <묘갈명>에서 ‘연원단적(淵源端的) 직접한천(直接寒泉)’이라 하였고, 유언집(兪彦鏞, 1714-1783)은 <행장>에서 ‘주자 문하에서 성리에 대해서는 북계(北溪) 진순(陳淳)이 으뜸이라고 하는데 이재 문하에서 성리에 있어서는 양응수가 으뜸이다’고 적고 있으며, 이상영은 <묘갈명>에서 이재 문하의 ‘박성원(朴聖源, 1697- 1767), 유언집, 송명흠, 김원행 등도 성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적에 양응수의 정확하면서도 분명한 조예를 높이 평가했다’고 적고 있다.

양응수는 스승이 죽자 심상(心喪) 중의 일들을 <축장일기(築場日記)>로 자세하게 남기고 있는데 스승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다. 또한 백수(白水)라는 양응수의 호는 이재가 지어준 것인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이재가 말년에 주연을 펼친 후에 제자들에게 시를 읊도록 했는데, 양응수의 시는 고준한 기상이 있었다. 이에 이재가 흥에 겨워 붓을 들어 ‘얼큰한 취기에 경설을 논하고 쉰 수염(白鬚) 휘날리며 시를 읊는데 이것이 궁핍한 유자가 뜻을 얻은 것일세.’라고 써서 양응수에게 주자, 동문들이 양응수를 백수(白鬚)라고 불렀다. 후에 양응수가 호를 부탁하자 이재가 백수(白水)라는 호를 주었는데, 이는 양응수가 백호(白湖)에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이재가 양응수를 허여한 당시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유언집이 <행장>에서 밝히고 있다.

본관은 남원(南原)으로 자는 계달(季達)이고 호는 백수(白水)이다. 순창에서 출생했으며, 아버지는 승의랑(承議郎) 처기(處基)이며 어머니는 강화최씨(江華崔氏)로 휴지(休之)의 딸이다.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끈끈하게 학문을 연마하였다. 후에 유종(儒宗)으로 추앙받던 이재가 한천에서 강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이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사제지간으로서 이재와 양응수는 마치 부자지간과 같아서 다른 제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1755년(영조 31)에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에 제수되고, 이어 익위사부수(翊衛司副)로 옮겨졌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일찍이 벼슬길에 뜻을 버리고 오로지 경학(經學)과 성리학(性理學)에만 전념해 「사서강설(四書講說)」 등 성리에 관한 정통한 저작과 논설들을 남겼다.

유언집이 <행장> 말미에 성리설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양응수의 글이 좋은 길안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의 문집에는 성리설에 대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문집 내 비중으로 보더라도 양응수의 <백수집>은 김원행의 <미호집>, 송명흠의 <역촌집>, 임성주의 <녹문집>에 비하여 성리에 관한 논설들이 더욱 많다.

양응수는 스승 이재와 마찬가지로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서는 낙론(洛論)을 지지하고, 호론(湖論)을 배척하였다. 그의 학설은 이재의 ‘일리이기(一理二氣)’설을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 양응수의 일리이기설에 기반 한 인물성동이론의 입장은 그가 스승의 심상 기간의 일들을 일기형식으로 남긴 <축장일기>의 정묘년 정월 17일의 기록에서 대강을 엿볼 수 있다.

이철하(李徹夏)가 이재의 영정에 조문한 후에 양응수를 방문하여, 근래에 심설에 대한 논의들이 벌어져서 호우(湖右, 한원진과 윤봉구) 쪽은 마음은 선악이 있으며 미발시에도 숙특(淑慝)의 종자가 있다고 하고, 호좌(湖左, 채지흥, 이간) 쪽은 마음은 본래 선하며 불선한 것은 구각혈기(軀殼血氣)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진다.

양응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두 설이 모두 편중되었다. 이재 선사의 리

일기이(理一氣二)의 설이 확실한 정론이다. 마음의 리는 하나이지만 기는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본연지기(本然之氣)는 명덕(明德)으로 주자의 “마음의 본체는 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다. 혈기지정영(血氣之精英)은 “정신이 발동하여 지각이 된다(神以發知)는 것”으로 진안경이 “모두가 선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발동하면 불선한 생각이 나오기 쉽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호좌(인물성동론)는 본연지기가 순선하다는 것은 보았지만 혈기정영은 반드시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호우(인물성이론)는 혈기지정영을 마음의 본체로 여겨서 본연지기가 순일하고 부잡하다는 것을 모른다. 따라서 리는 하나이고 기는 둘이다(理一氣二)라고 해야 마음의 체단이 원전하면서도 구분이 명확해진다. 이 입장은 성현의 말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듣고 이철하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했다.

저서로는 <백수문집(白水文集)> 30권 17책이 전해온다.



## 오국현(1599-1672)

선병삼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국조인물고>에 수록된 권상하의 ‘묘갈명’에 송준길(宋浚吉)의 문하(門下)에 출입하였는데 송준길 또한 칭찬하고 허여하였다고 하는데, 송준길(1606-1672)과의 나이를 따져보았을 때 제자로 입문하여 배운 것은 아닌 것 같다. 김장생의 문집인 <사계전서>의 ‘문인록’에 오국현의 이름이 들어 있다.

인조반정 후에 서인의 영수로 활약한 김장생은 늦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고 과거를 거치지 않아 요직이 많지 않았고, 인조 즉위 뒤에도 향리에서 보낸 날이 더 많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이이의 문인으로 줄곧 조정에서 활약한 이귀(李貴)와 함께 인조 초반의 정국을 서인 중심으로 안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특히 그의 문하에서 이후 학계와 정계를 주름잡은 제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강석기(姜碩期)·장유(張維)·정홍명(鄭弘溟)·최명룡(崔命龍)·김경여(金慶餘)·이후원(李厚源)·조익(趙翼)·이시직(李時稷)·윤순거(尹舜舉)·이목(李栻)·윤원거(尹元舉)·최명길(崔鳴吉)·이상형(李尙馨)·송시영(宋時榮)·송국택(宋國澤)·이덕수(李德洙)·이경직(李景稷)·임의백(任義伯) 등 당대의 비중 높은 명사를 즐비하게 배출하였다.

본관은 해주(海州)로 자는 중현(仲賢)이고 호는 어은(漁隱)이다.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산립(山立)이며 어머니는 남원양씨(南原梁氏)로 대사간 사귀(思貴)의 딸이다.

향시(鄉試)에 여러 번 합격하였으나 정시(庭試)에 거듭 실패하였고, 병자호란의 치욕이 있는 뒤에는 벼슬을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성리학과 예학에 밝았으며, 나중에 단성(丹城)의 도천(道川)에 옮겨 살면서 마을 이름을 어은동(漁隱洞)이라 고치니 송시열(宋時烈)이 ‘어은(漁隱)’이라는 편액을 써주었다고 한다.

권상하는 <묘갈명>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읍지(邑誌)>의 기록을 전제하길, “공은 젊어서 문재(文才)가 뛰어났는데, 누차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되지 않자 시골에 내려가 두문불출하고서 수석(水石)과 화조(花鳥)를 완상하며 스스로 즐겼고, 성현(聖賢)의 글을 열심히 읽으며 늙어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이 벼슬하기를 권하면 머리를 흔들며 대꾸하지 않았는

데 우암 선생(尤菴先生), 송시열(宋時烈)이 ‘어은(漁隱)’이라는 두 글자를 써 주어 공을 가상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공은 또 일찍이 동춘(同春,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문하(門下)에 출입하였는데, 동춘 선생 역시 공을 펴 칭찬하고 허여하였다. 임자년(壬子年, 1672년 현종 13년) 동짓달 14일에 집에서 별세하니, 향년 74세였다.”라고 적고 있다.

음직으로 수차에 걸쳐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번번이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1712년(숙종 38)에 승훈랑(承訓郎)과 호조좌랑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사서해의(四書解義)』 2권, 『역계해의(易繫解義)』 1권, 『잡저(雜著)』 3권, 『유후귀감(遺後龜鑑)』 3권이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고 『어은유고』 5권만이 전한다.

## 오원(吳瑗, 1700-1740)

선병삼

이재(李緯)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스승 이재는 낙론의 거두인 김창협(金昌協)의 수제자로 1725년 영조가 즉위한 뒤 부제학에 복직해 대제학, 이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대제학에 재임되었다. 그러다가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되자 문외출송(門外黜送 : 서울 성문 밖으로 쫓겨남)되었으며, 이후 용인의 한천(寒泉)에 거주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1740년 공조판서, 1741년 좌참찬 겸 예문관제학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였다.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로, 윤봉구(尹鳳九), 송명흠(宋命欽), 김양행(金亮行) 등과 함께 당시의 정국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관은 해주(海州)로 자는 백옥(伯玉)이고 호는 월곡(月谷)이다. 할아버지는 오두인(吳斗寅)이고, 아버지는 오진주(吳晉周)이다. 어머니는 예조판서 김창협(金昌協)의 딸로 이재와는 처질(처조카) 간이다. 오태주(吳泰周)에게 입양되었다.

조부 오두인은 1648년(인조 26)에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효종조에 지평(持平)을 거쳐 장령(掌令) 헌납(獻納), 사간이 되었다. 정조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부교리(副校理), 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숙종조에는 공조참판으로서 사은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호조참판이 되고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다음해 공조판서에 올랐다. 1689년 형조판서로 재직중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각하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세 번이나 임명되고도 나가지 아니하여 삭직 당하였다. 이해 사직(司直)을 지내고, 5월에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가 폐위되자 이세화(李世華), 박태보(朴泰輔)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소를 올려 국문을 받고 의주로 유배 도중 파주에서 죽었는데 그 해에 복관되었다. 1694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국조인물고』에 실린 김창협이 쓴 비명에 이렇게 적혀있다. “금상(今上) 15년 기사년(己巳年, 1689년 숙종 15년)에 중궁(中宮, 인현 왕후(仁顯王后) 민씨)이 손위(遜位)하니, 판서(判書) 양곡(陽谷) 오두인(吳斗寅)공이 참판(參判) 이세화(李世華)공과 응교(應教) 박태보(朴泰輔)공 등 80여 인과 더불어 대궐에 나아가 상서(上書)하여 극간(極諫)하였는데, 오공이 기실 주장이었다.” 김창협의 셋째 딸이 오원의 생부인 오진주에게 시집을 갔으니, 오두인과 김창협은 사돈 간이다.

부친 오진주는 1714년(숙종 40) 갑오(甲午) 증광시(增廣試)에 생원(生員) 3등으로 급제하였으며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났다. 진사(進士)로 나아가 관직이 군수(郡守)에 이르렀다. 형제로는 여흥 민씨 소생의 오관주(吳觀周), 원주 김씨 소생의 오정주(吳鼎周), 상주 황씨 소생인 오태주(吳泰周), 오이주(吳履周)가 있다. 오진주는 오태주의 동생이다.

오태주는 12세인 1679년(숙종 5) 현종의 딸인 명안공주(明安公主)와 혼인하여 해창위(海昌尉)에 봉해졌고 명덕대부(明德大夫)의 위계를 받았다. 숙종은 누이동생인 명안공주를 지극히 사랑하여 청나라에서 고급 비단이 들어오면 후궁보다 명안공주에게 먼저 보냈고, 공

주의 거처인 명안궁을 전례가 없는 1,826칸의 대규모로 지어주었다. 1687년(숙종 13)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는데, 공주가 갑자기 사망하자 숙종이 매우 슬퍼하여 소복 복장에 머리를 풀고 10일간이나 육식을 금하였다고 전한다. 오탈아가 후사가 없게 되자 오원이 오탈아에게 입양되었다. 『영조실록』에 오원에 관한 기사 중 ‘명안 공주(明安公主)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은 바로 여기서 연유한다.

오탈아는 1723년(경종 3) 사마시에 합격하고 1728년(영조 4) 정시문과에 장원하여 문명(文名)이 높았다. 사서(司書)로 있을 때 영조에게 학문과 덕을 닦는 요령을 진언(進言)하여 받아들여지게 하였고 직언을 잘 하기로 이름이 났다.

1729년 정언으로 있으면서 탕평책을 적극 반대하다가 한때 삭직되었다. 1732년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이어 교리(校理), 검토관(檢討官), 이조좌랑, 응교(應敎)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736년 참찬관(參贊官)으로 민형수(閔亨洙)를 신구(伸救)하려다가 또 파직되었으나 곧 다시 기용되어 1739년 부제학(副提學)이 되고 승지, 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영조실록』 16년에 오원의 졸기가 실려 있다.

"공조 판서 오원(吳瑗)이 졸(卒)하였다. 오원은 충정공(忠貞公) 오두인(吳斗寅)의 손자인데, 일찍이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났고 벼슬은 대제학에 이르렀다. 사람됨이 깨끗하여 욕심이 없고 소탈하였으므로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았는데, 졸(卒)할 때 나이 41세였다. 임금이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이 있는데도 일찍 죽은 것을 애석히 여겨 차탄하고 애도하였으며, 시호를 내리라고 명하였다."

성품은 정직하고 성실하면서 온후(溫厚)하였으며 총명함이 남보다 훨씬 뛰어나고 문장 또한 깨끗한 절개를 지녔다 하여 진정한 유신(儒臣)이라는 평을 들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저서로는 『월곡집』이 있다.

## 오준선(吳駿善, 1851-1931)

선병삼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오준선은 유년기에는 족속 오태규(吳泰圭, 1843~?)에게 수학하였다. 오준선이 18세 되던 해에 당시 71세의 기정진(奇正鎭)을 찾아가 예법과 경전 등을 탐구하게 되었으며 기정진의 기대를 받았다. 이때 기우만, 고광순과 동문수학하였다.

스승 기정진은 19세기 호남유학의 마지막 거장으로 평가받는 유장으로서 정조 22년(1798) 6월 3일 전라북도 순창군(淳昌郡) 조동(槽洞)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금빛 얼굴을 가진 큰 사람이 남자아이를 안고 오는 꿈을 꾸 뒤 12개월 만에 그를 낳았다고 한다. 기정진은 어려서부터 영특함이 남달랐다. 네 살 때 『효경(孝經)』과 『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을 읽었고, 이때부터 5~6년 동안 『소학』,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비롯한 경서와 『강목』, 『춘추』 등의 역사서를 두루 공부했는데, 기억력이 매우 좋아 보는 것은 모두 외웠다. 판단력과 행실도 올발라 네 살 때는 이웃집 과일이 자기 집 마당에 떨어지자 모두 주워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섯 살 때 천연두를 앓아 왼쪽 시력을 잃는 불행을 겪는다.

후일 학문이 대성하여 독창적이면서 탁월한 저작을 남긴다. 그의 주요 저작은 4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산출되어 노년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기정진의 성리설은 이(理)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일원론(理一元論) 관점의 주리론이라고 요약된다. 특정한 사승(師承) 관계나 학맥에 의존하지 않고 성리학의 근원인 중국 송대의 학문을 직접 연구해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대표저작으로는 40대 중반에 저술한 「납량사의(納涼私議)」(1843, 46세 완성 이후 1874년 77세 수정)를 비롯해 50대 중반에 지은 「이통설(理通說)」(1853, 55세)과 81세의 노령에 발표한 「외필(猥筆)」(1878) 등이 꼽힌다.

오준선은 학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이후 기호학파의 전통을 이은 전재(全齋) 임헌희(任憲晦, 1811-1876)와 입재(立齋) 송근수(宋近洙, 1818-1903)를 찾아 가르침을 청했다. 임헌희는 이이와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주기론(主氣論)을 주장한 당대의 석학이고, 송근수는 은진 송씨로 송시열 - 권상하 - 한원진 - 송능상 - 송환기, 김정목 - 송치규 - 송달수, 송근수 - 송병선, 송병순으로 이어지는 학맥의 전승자로서 1882년 좌의정 재임 시 정부의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사직소를 올려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였다.

호는 후석(後石)이고 자는 덕행(德行)이며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그의 선대를 살펴보면, 고려 혜종(惠宗, 914~945)의 모친 장화왕후(莊和王后)는 나주오씨(羅州吳氏)의 역사 속에 크게 이름을 나타난 인물이다. 가장 오래된 오씨 족보(吳氏族譜)는 오희도(吳希道, 1583-1624)가 적은 필사본이 전하고 있다. 나주오씨는 고려 때 중랑장(中郎將) 오언(吳僊)을 1세로 하고, 5세손 오자치(吳自治)는 세조13년(1467)에게 영정을 하사 받은 인물이다. 오준선의 8대조 병조좌랑 오이익(吳以翼, 1618-1666)은 오희도(吳希道)의 아들이다. 부친은 오하규(吳夏圭, 1829-1872)로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 백부 오항규(吳恒圭,

1824-1874)에게 입양되었다. 오준선은 평소 형제간의 깊은 우애가 깊었는데, 동생 오영선(吳泳善, 1854-1872)과 오유선(吳裕善, 1857-1886)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영선의 양아들 오동수(吳東洙, 1878-1945)와 유선의 아들 오남수(吳南洙, 1884-1933)를 친자식처럼 기르고 가르쳤다.

매천(梅泉) 황현(黃玼, 1855-1910)은 기정진이 지은 「납량사의(納涼私議)」를 두고 이 글은 당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모두 쓸어버릴 정도라고 격찬하였다. 이 글에서 기정진은 기를 중시하는 주기론과 기의 존재를 일정하게 인정하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부정하고 이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주리론을 주장하였다. 기정진의 이 학설은 기호 학맥의 원류인 이이의 학설을 비판하였다고 하여 송병선(宋秉璿, 1836-1905)과 전우(田愚, 1841-1922)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때, 오준선은 기정진이 이이에게 심복하면서도 다만 이기설에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며, 그것은 이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후현이 선현의 이론을 변론(辯論)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정진이 「외필(猥筆)」에서 ‘이(理)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을 생성하고 변화하게 하는 근원적 실재로서 기(氣)의 발동과 운행은 오직 이(理)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준선은 스승의 학설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기호학파 중 이일원론을 전개한 스승 기정진의 주리론적 입장을 따른 오준선은, 기정진의 설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모든 행동의 근원은 명령을 내리는 자가 주인이고, 주인은 바로 이(理)요, 명령을 받은 자는 종이니 종은 바로 기(氣)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오준선은 망국의 현실을 통곡하며 오백년 예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금수의 오랑캐 나라가 되었으니 망국에서 살아남은 자가 몸을 던져 죽을 수 없다면, 뜻에 따르는 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입산하였다. 처음 석문산에 은거했으나, 용진산으로 문도들이 거처를 축성하여 용진산으로 옮겼다. 용진산으로 들어간 오준선은 후일을 기약하며 의병들의 행적을 수집하여 「의병전」을 저술하였다. 그는 「의병장 기삼연전」, 「의병장 고낙천광순전」, 「의사 김준 전수용 합전」을 지었고 「의병장 심남일 행장」, 「의병장 고광순 행장」 등 5명의 의병장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문집으로 『後石遺稿』가 전한다.

## 유기일(柳基一, 1845-1904)

선병삼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항로는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3세 때 『천자문』을 떼고, 6세 때 『십구사략(十九史略)]을 읽고 「천황지황변(天皇地皇辨)」을 지었다. 12세 때 신기령(辛耆寧)에게서 『서전(書傳)]을 배웠다. 1808년(순조 8) 반시(泮試: 한성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당시 권력층의 고관이 과거급제를 구실로 자기 자식과의 친근을 중용하자, 이에 격분하여 과장의 출입마저 수치스럽다 하여 끝내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그의 이기론(理氣論)은 주리철학(主理哲學)의 입장을 고수하여 이(理)와 기(氣)는 대등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理)를 중요시하는 그의 주리설(主理說)은 객관적 입장에서 논리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도덕의식이 피폐된 당시의 상황에서 순선(純善)을 지향하고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는 영남의 이진상(李震相), 호남의 기정진(奇正鎭)과 더불어 한말 주리철학(主理哲學) 3대가로 일컬어졌다.

그는 주리철학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한말(韓末) 위정척사(衛正斥邪) 의리론(義理論)의 대표자로서 일본과 서양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의 선봉이 되었다. 그의 문하(門下)에서 척사위정(斥邪爲正)과 창의호국(倡義護國)의 중심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최익현(崔益鉉), 김평묵(金平默), 유중교(柳重教), 유인석(柳麟錫) 등이 그들이었다.

자는 성존(聖存)이고 호는 용계(龍溪) 또는 용서(龍西)이며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동지돈녕부사 문녕군(文寧君) 유병철(柳秉喆)이다.

일찍이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1868년 이항로 사후에는 그 적전(嫡傳)을 계승한 김평묵을 사사함으로써 이 양현의 학문과 사상에 깊이 경도되었다. 또한 동문 선배로 동향이던 최익현(崔益鉉), 춘천의 동문 홍재구(洪在龜) 등과 일생토록 두터운 교분을 가지고 있었다.

1876년 개항 문제를 두고 조야에서 논의가 격렬하게 일어날 때, 유인석(柳麟錫), 윤정구(尹貞求) 등 화서학파 48인과 함께 개항 반대상소인 「경기강원양도유생논양왜정적영청절화소(京畿江原兩道儒生論洋倭情迹仍請絶和疏)」를 올리는 등 화서학파 위정척사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였다.

그 뒤 점차 일제 침략으로 인해 시국이 혼탁해지자 향리의 향적산(香積山) 아래에 은거하였다. 여기서 『척양록(斥洋錄)]을 짓는 등의 저술활동과 도학 강명을 통한 문인 양성에 일생토록 진력하였다.

그의 사상과 학문은 화서학파의 특징인 춘추대의적 의리와 명분 정신에 입각한 위정척사, 존화양이(尊華攘夷)에 철저히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결과 주희(朱熹), 송시열(宋時烈), 이항로 등을 특히 존송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제 침략이 가속화되는 시국상황에서는 유인석, 이소응(李昭應) 등 유중

교 계열의 화서학과 인물들이 적극적인 항일투쟁의 전면에 투신했던 경향과는 처신의 방편을 달리하였다. 그리하여 홍재구(洪在龜) 등과 함께 자정수의(自靖守義)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총 114권의 방대한 수고본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중 그 대부분이 산일되고 일부를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 이 외에 불분권(不分卷)의 문집 18책과 2책의 『능언(能言)』 등 총 20책의 미간행 수고본 문집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하성문고(霞城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 유숙기(兪肅基, 1696-1752)

선병삼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년-1722)의 문인이다. 김양행(金亮行, 1715-1779)은 유숙기의 『겸산집(兼山集)』 서문에서, 유숙기가 일찍이 김창흡의 문하에서 배울 적에 경전의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 그 단서만을 알려주어도 단박에 깨달아서 본래 제자들을 쉽게 허여하지 않는 김창흡이지만 유독 유숙기에 대해서는 매우 흡족해하고 허여했다고 적고 있다.

김창흡은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자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며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金昌集)과 예조판서를 지낸 김창협(金昌協)의 동생이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명으로 응시하여 1673년(현종 14) 진사시에 합격한 뒤 과장에 발을 끊었다. 백악(白岳) 기슭에 낙송루(洛誦樓)를 짓고 동지들과 글을 읽으며 산수를 즐겼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자, 영평(永平: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에 은거하였다. 『장자』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를 좋아하고 시도(詩道)에 힘썼으며, 친상을 당한 뒤에는 불전(佛典)을 탐독하여 슬픔을 잊으려 하였다. 그 뒤 주자의 글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어 유학에 전념하였다.

그는 형 김창협과 함께 성리학파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고, 이기설에서는 이황(李滉)의 주리설(主理說)과 이이(李珥)의 주기설(主氣說)을 절충한 형 김창협과 같은 경향을 띠었다. 즉, 선한 정(情)이 맑은 기(氣)에서 나온다고 말한 이이의 주장에 반대하고 선한 정이 오직 성선(性善)에서 나온다고 말한 형 창협의 주장에 찬동하였다. 또한 사단칠정(四端七情)에서는 이(理)를 좌우로 갈라 쌍관(雙關)으로 설명한 이황의 주장에 반대하고, 표리(表裏)로 나누어 일관(一關)으로 설명한 이이의 주장을 찬성하였다.

자는 자공(子恭)이고 호는 겸산(兼山)이며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아버지는 의정부우참찬 명웅(柳命雄)이며, 어머니는 임천조씨(林川趙氏)로 인천부사 현기(趙顯期)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단정하여 헛되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엄격히 자제하여 어른을 잘 섬겼으며, 스스로 학업에 힘써서 1715년(숙종 41)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다. 한때 송산(松山)에서 성리서(性理書)에 전념하였으며, 교하(交河)의 매음(梅陰)으로 이거한 뒤 원근의 선비들을 가르쳤다.

1733년 명릉참봉(明陵參奉)으로 벼슬길에 들어가 효릉참봉(孝陵參奉)·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를 거쳐 금구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그 뒤 임피현령(臨陂縣令)과 전주판관 등을 역임하였다.

김양행은 유숙기의 『겸산집(兼山集)』 서문에서 유숙기의 학문적 성취를 이렇게 적고 있다.

"삼연 선생(김창흡)은 사람들의 질문에 따라 대략적으로 알려줄 뿐 극진하게 변론하지는 않았는데 겸산 선생(유숙기)이 호락논쟁에 대한 제가들의 변론이 극성할 적에, 저들의 글을 모두 읽어보고 취사선택하여 지당한 귀결을 내리고자 하였다. 올바른 관점에다가 표현이 정

확한데, 가령 미발오상(未發五常)과 심기(心氣) 등의 변론은 매우 훌륭하다."

유숙기는 「심성이기설(心性理氣說)」에서 심과 성에 대해 김창흡의 이론을 지지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였고, 「심여기질부동설(心與氣質不同說)」은 심과 기질에 대하여 논술한 것으로 이기(理氣)에 있어서 역시 김창흡과 가까운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였다. 「태극도설차의(太極圖說筭疑)」에서는 태극도설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주돈이(周敦頤)·주희(朱熹) 등 송유(宋儒)의 이론을 중심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선현들의 학설을 광범위하게 인용,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밖에 한원진(韓元震)의 심자설을 논변한 「심자설변(心字說辨)」과 정언환(鄭彦煥)의 이기설에 대하여 이황(李滉)과 이이(李珣)의 이론을 인용하여 논변한 「이기설변(理氣說辨)」, 송시열(宋時烈)이 유배되었을 때 그 입장을 변호한 「우암선생변무소(尤庵先生辨誣疏)」, 윤지술(尹志述)의 신원을 청한 「북정윤지술신원소(北汀尹志述伸冤疏)」가 있다. 「중용차의(中庸筭疑)」와 「서경차의(書經筭疑)」 등은 경서 연구에 도움이 된다.

후에 이 글들은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제자 金載順(1732년-미상)과 아들 유언부(柳彦傳)가 상의하여 1775년(영조 51)에 간행한 『겸산집(兼山集)』에 수록되었다.

## 유척기(兪拓基, 1691-1767)

선병삼

어려서 포음(圃陰) 김창즙(金昌緝, 1662년-1713)에게서 배웠다. 스승 김창즙은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다. 당시 형 김창집(昌集), 김창협(昌協), 김창흡(昌翕), 김창업(昌業)과 함께 문장대가로 평가를 받았으며, 막내 동생 김창립(金昌立)과 함께 육창(六昌)이라 불렸다.

김창즙은 1684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교관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아니하였고, 1689년 기사환국으로 아버지 김수항이 사사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700년 아버지의 유문인 『문곡집(文谷集)』을 간행했고, 1710년 왕자사부(王子師傅)를 거쳐 예빈시주부(禮賓寺主簿)를 지냈다. 문장과 훈고(訓詁)에 능하고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우(李埰)는 유척기의 유교인 『지수재집(知守齋集)』의 발문에서 유척기가 어렸을 적에 포음 김창즙에게서 배웠는데, 김창즙이 국기(國器)로서 칭찬하고 격려하였다고 적고 있다.

자는 전보(展甫)이고 호는 지수재(知守齋)로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할아버지는 대사헌 유철(柳徹)이고 아버지는 목사 유명약(柳命岳)이며, 어머니는 이두약(李斗岳)의 딸이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1714년(숙종 40)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검열이 된 후 정언(正言), 수찬, 이조정랑, 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1721년(경종 1) 세제(世弟)를 책립하자 책봉주청사(冊封奏請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신임사화 때 소론의 연관 이거원(李巨源)의 탄핵을 받고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 1) 노론의 집권으로 풀려나서 이조참의, 대사간을 역임하고 이듬해 승지로 참찬관을 겸하다가 경상도관찰사, 양주목사, 함경도관찰사, 도승지,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 세자시강원빈객(世子侍講院賓客), 평안도관찰사, 호조판서 등을 두루 지냈다.

1739년 우의정에 오르자, 신임사화 때 세자 책봉 문제로 연좌되어 죽은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頤命) 두 대신의 복관(復官)을 건의해 신원(伸冤)시켰다.

앞서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등극하는데, 노론은 경종 즉위 뒤 1년 만에 연잉군(延昞君: 뒤의 영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는 일을 주도하고, 세제의 대리청정을 강행하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론측은 노론의 대리청정 주장을 경종에 대한 불충(不忠)으로 탄핵하여 정국을 주도하면서 소론정권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노론이 숙종 말년부터 경종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었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告變事件)이 발생한다. 고변으로 인해 8개월간에 걸쳐 국문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김창집(金昌集) · 이이명(李頤命) · 이건명(李健命) · 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대다수 인물이 화를 입었다. 이 옥사는 노소론간의 대립이 경종 즉위 후 왕에 대한 충역 시비의 형태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자체는 경종대의 문제였지만, 그에 대한 평가 문제는 영조대에 탕평책(蕩平策)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한편 유척기는 신임사화의 중심인물인 유봉휘(柳鳳輝), 조태구(趙泰耆) 등의 죄를 공정히 다스릴 것을 주청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직하였다. 그 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당시의 명류(名流) 조관빈(趙觀彬)·김진상(金鎭商)·이기진(李箕鎭) 등도 벼슬을 그만두었다. 이천보(李天輔)가 영의정에서 물러나자 영조에 의해 중용되어 영상으로 임명되었다. 1760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고, 이어서 봉조하(奉朝賀)를 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기국(器局)이 중후하고 고금의 일에 박통했으며, 대신의 기풍을 지닌 노론 중의 온건파에 속하였다. 당대의 명필가요 금석학(金石學)의 권위자이기도 하였다. 글씨로는 경주의 「신라 시조왕비(新羅始祖王碑)」, 청주의 「만동묘비(萬東廟碑)」 등을 남겼다.

『영조실록』 43년에 유척기의 졸기가 실려 있다.

"봉조하 유척기(兪拓基)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연석(筵席)에서 애석해 한탄하고 꿈에서 보았다는 하교까지 하면서,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시호(諡號)를 의논하라고 하였다. 문익(文翼)이란 시호를 내렸다. 유척기는 너그럽고 후덕하여 대신다운 도량이 있었으므로, 위아래가 의지하며 중히 여겨 온 지 거의 수십 년이나 되었다."

짧은 이 글에서도 유척기에 대한 영조의 신망과 동료들의 인망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저서로는 『지수재집(知守齋集)』이 전한다.

## 윤급(尹汲, 1697-1770)

선병삼

윤급은 어려서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뒤에 도암(陶菴) 이재(李穡, 1680-1746)의 문하에서도 수학했고 박필주(朴弼周, 1665-1748)의 문하에서도 수학하였다. 김창협은 신임사화 노론 4대신의 한 명인 김수항의 둘째 아들로 낙론의 종장으로 당시 문학과 유학의 으뜸으로 추앙받은 유신이요, 이재는 김창협의 학통을 계승한 수제자로 영조조에 노론 벽파의 영수로서 정국 전개에 영향을 주었고, 박필주는 노론 낙론 계열의 산림학자로서 김창협의 동생인 김창흡 아래에서 수학하였다.

자는 경유(景孺)이고 호는 근암(近庵)이며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5대손이며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 윤세수(尹世綏)이고 어머니는 이하(李夏)의 딸이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형제 정승으로 유명한 윤두수(尹斗壽)와 윤근수(尹根壽) 형제의 후손으로서 윤두수의 넷째 아들 윤휘(尹暉)의 4대손이다. 그의 가계는 윤근수, 윤두수 형제가 집안을 일으킨 뒤 5대조 윤두수, 종5대조 윤근수, 종고조부 윤방이 모두 공신으로 부원군의 봉작을 받았다. 고조부 윤휘는 한성부 판윤, 형조판서, 공조판서를 지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사후 증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증조부 윤면지(尹勉之)는 첨정을 지내고 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할아버지 윤계는 호조판서를 지내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사후 의정부영의정을 추증받았다. 아버지 윤세수는 만학도로 41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47세인 1705년에 문과에 급제해 사간원사간과 황해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그의 집안은 서인으로 후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자, 그의 친족들도 노론과 소론으로 각각 갈라졌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윤계 때 노론을 선택하였다.

1725년(영조 1)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수학했는데, 과제로 지은 글이 우수하여 바로 그 해의 정시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그 해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는데, 이 때 시권(試券)의 비봉(祕封) : 시험지 끝에 응시자 본인의 관직·이름·본관·거주지 및 부·조·증조의 관직 이름, 외조의 관직 이름과 본관 등을 다섯 줄로 쓴 뒤, 관원들이 응시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 위를 종이로 붙여 봉한 곳에 나이와 본관을 쓰지 않아 격식 위배로 탈락하게 되었으나, 헌납 채응복(蔡膺福)의 상소로 구제되었다.

이 일은 두고두고 윤급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영조실록』 3년에 윤급이 사직하는 소를 올리는 기사에서 윤급이 스스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겸설서(兼說書) 윤급(尹汲)이 사직하는 소를 올리고, 잇달아 스스로 한계를 지어 처신해야 한다는 뜻을 진달하니, 답하기를, "지난날의 일이 비록 잘 처리한 것은 아니나 그 일은 사소한 것이요, 세상에 나와 임금을 섬기는 것은 그 의리가 크니, 그대는 다시 사양하지 말

고 직무를 살피라." 하였다. 대개 윤급이 등과(登科)할 때 봉미(封彌)가 규격에 어긋남이 있어 방목(榜目)에서 뽑아 버리게 되었는데, 왕명으로 과방(科榜)이 회복되었다. 그 뒤 묘당(廟堂)에서 차자(筭子)를 올려 간하면서 그를 과방에서 뽑아내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5년 조에서는 조상행(趙尙行)이 소를 올려 윤급이 대과시험에서 위격한 것을 문제 삼아 사관으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함을 논하고 있다.

1727년 설서가 된 뒤 정언, 지평, 수찬, 교리 등을 차례로 지냈다. 1734년 이조좌랑으로 있을 때 전주권(銓注權)을 독점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조판서 송인명(宋寅明)을 비난하다 파직되었다. 1736년 사간으로 다시 기용된 뒤 집의·검상·부응교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교리로서 문과 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우부승지·대사간 등을 지내고, 1741년 대사성이 되어 유생의 기강 쇄신과 학풍의 진작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생들이 사원(祠院)의 훼손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자 그 책임으로 이조참의로 체직되었다. 1744년에는 인사 행정의 잘못으로 일신현감(一新縣監)으로 좌천되었다.

1746년 부제학이 되어 동의금부사·한성좌윤을 역임하고,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호조참판이 되었다.

1749년 이조판서 정우량(鄭羽良)이 그의 당(黨)인 이창수(李昌壽)를 이조참의로 삼으려는 것을 반대하다 홍원현감으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다시 부제학으로 기용된 뒤, 예문제학·형조판서·개성유수·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대사헌에 이르렀다. 이 때 문무식년회시(文武式年會試)에서 왕의 소패(招牌)를 어겨 도배(徒配)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1763년 참찬이 된 뒤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영의정 신만(申晩)의 아들 광집(光輯)의 초사(初仕) 문제로 왕의 노여움을 사 파직되었다가 곧 우참찬이 되었다. 이후 이조판서·판의금부사·한성판윤·예조판서·형조판서·좌참찬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영조실록』 46년에 윤급의 졸기가 실려 있는데, 영조의 윤음은 다음과 같다.

"윤급은 근년에 와서 더욱 성실하고 정백(精白)하여, 이 때문에 배척을 받아 조정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매우 마음에 걸렸다. 이 부음을 갑자기 접하니 슬프고 애석함을 어찌 이루 말하겠는가? 관재(棺材)를 가려서 보내고 제문(祭文)을 지어서 내릴 것이니, 삼명일(三明日)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여 나의 뜻을 표하라. 듣건대 내년이 곧 회혼(回婚)이라 하니 옷감과 식물(食物)을 그 부인(夫人)에게 보내어 한편으로 저승에 있는 혼령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살아 있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을 위로하게 하라."

사관이 기록하기를, '윤급의 자(字)는 경유(景孺)이니, 고 상신 윤두수(尹斗壽)의 5대손이다. 벼슬은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 양관(兩館)의 제학(提學)을 거쳐 마침내 1품에 올랐다. 사람들은 혹시 논의가 지나치게 준엄(峻嚴)하다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충역(忠逆)의 의리에 엄격하고 지조(志操)가 확고하였다'고 적고 있다.

준급한 언론으로 영조의 탕평책을 계속 반대하여 자주 파직 혹은 좌천되었으나 의로운 주장이 많았기에 곧 서용되곤 하였다. 특히, 글씨에 뛰어나 독특한 서체를 이루었다.

저서로는 『근암집』, 『근암연행일기』 등이 전한다.

## 윤방(尹昉, 1563-1640)

선병삼

성혼(成渾)과 이이(李珣)의 문인이다. 『국조인물고』에는 한문4대가(漢文四大家)의 한 명으로 유명한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 쓴 신도비명이 실려 있는데, “어릴 적에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울곡(栗谷, 이이李珣)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는데, 경전(經傳)의 심오한 뜻을 연구하고 종합하여 가끔씩 창을 들고 방에 들어가곤 하니, 그때마다 두 분 선생도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다.

이식의 신도비명은 상세하기와 추송하는 마음이 글에 묻어나오는 것이 여느 신도비와 비교하여 각별한 점이 있는데, 이는 이식이 「신도비명」의 서두에서 공의 겸손함의 덕량에 감복하는 바가 있어서 후세에 그 전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대목에서 그 연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자는 가회(可晦)이고 호는 치천(稚川)이며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이며 어머니는 관찰사 황기(黃琦)의 손녀로 참봉 대용(大用)의 딸이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윤두수는 이항(李滉)과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이었지만 젊어서부터 성혼, 이이, 정철 등과 친교를 맺고 동서분당 시에는 서인에 가담하였다. 1555년 생원이 되고, 155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1591년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정철(鄭澈)이 화를 입자 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扈從)하여 어영대장(御營大將),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 급박한 상황에서 평양(平壤)이 위태로워지자 의주(義州)로 피난갈 것을 주장하여 실현시켰고, 요동(遼東)으로 피난하려는 계획을 반대하였다. 1594년 세자를 시종하여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가 되었고 1595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왕비를 해주(海州)로 시종하였다. 1599년 영의정(領議政)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남파(南坡)로 돌아갔다.

윤방은 1582년(선조 15) 진사가 되고 158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에 임명되고 이어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을 거쳐 봉교·예조좌랑이 되었다. 곧 사헌부정언으로 옮겨 병조판서 이양원(李陽元)의 인사 부정을 탄핵하다가 성균관전적으로 체직되었다. 1591년 당쟁으로 아버지가 유배당하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바로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정철(鄭澈)이 화를 입자 이에 연루되어 유배된 사건이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 아버지가 재상으로 다시 기용되자, 예조정랑으로 발탁되어 선조를 호종하였다. 이때 대부인(大夫人)이 서거(逝去)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선조가 청요직을 두루 제수하고, 이조 좌랑을 거쳐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教)로 승진시키기까지 하였으나 모두 배수(拜受)하지 않았다. 이때 왜적이 사방에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낮에는 숨고 밤에 달려가 몰래 빈소(殯所)에 이르러서는 곡읍(哭泣)을 하며 자리를 지켰는데, 몇 번이나 왜적을 만났어도 다행히 빠져 나오곤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공의 효심에 하늘이 감



동한 결과라고 일컬었다.

곧 직강·사예가 되고 다시 당론이 일어나 아버지가 파직 당하자 스스로 파직을 요청해 대각(臺閣)에서 물러났다가 곧 군기시첨정에 제수되었다. 이어 경상도순안어사(慶尙道巡按御史)로 나가 치적을 올리고 군기감정(軍器監正), 평산부사를 거쳐 이몽학(李夢鶴)의 난이 끝나자 추관(推官)으로 활약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순안독찰(巡按督察)이 되어 군량 운반을 담당하고 곧 철원부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 동부승지로 승진되어 돌아오자 그 곳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워 덕을 기렸다.

1601년 부친상을 마친 뒤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곧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어 병조참판 겸 동지춘추관사에 보임되었다가 도승지로 전직되었고 다시 한성판윤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올랐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형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경기도, 경상도의 감사를 지냈다. 이어 검지춘추관사로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1615년(광해군 7) 다시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18년 인목대비(仁穆大妃)에 대해 폐모론이 있자 병을 핑계로 정청(政廳)에 불참해 탄핵을 받고 사직 은퇴하였다.

윤방은 그의 중자(仲子)인 윤신지(尹新之)가 선조의 정혜옹주(貞惠翁主)와 결혼하여 왕실과 인척(姻戚)의 관계였지만 평소 자신의 몸가짐을 엄하게 단속하여 사사로운 정의를 돌아보지 않았고 자제와 노복(奴僕)들도 감히 이를 어기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궁중에서는 윤방이 집안일을 돌아보지도 않고 인척 관계를 맺은 후의(厚意)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광해군의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인척 집안의 중신(重臣)들이 모조리 화망(禍網)에 걸려들었을 적에도 윤방은 초연(超然)히 화를 면할 수가 있었으므로 논하는 이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 여겼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예조판서로 등용되고, 이어 우참판으로 판의금부사를 겸하다가 곧 우의정에 올랐다. 다시 좌의정으로 있을 때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 민심 수습에 공헌했으며, 1627년(인조 5) 영의정이 되었다.

이괄의 난을 피하여 대가(大駕)가 천안(天安)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적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보고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윤방이 먼저 경성에 들어가서 수습하겠다고 자청하고는 단기(單騎)로 치달려 들어가 보니 도성 사람 가운데 적을 따랐던 자들이 흥흥한 분위기 속에서 관망(觀望)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윤방은 수악(首惡) 약간 명만을 본보기로 처형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살려 주어 새로운 길을 건도록 허락하였다. 이때에 역적을 따른 사람 수천 명의 명단이 적힌 문안(文案)이 발견되었으므로 종사(從事)하는 관원들과 친근한 사람들이 다투어 살펴보려고 하였는데 윤방이 이것을 모두 가져다가 불태워 버리니 도성 안이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 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의 피난을 주장해 강화에 호종했고, 영의정에서 물러나 판중추부사를 역임한 후 1631년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묘사제조(廟社提調)로서 40여 신주(神主)를 모시고 빈궁(嬪宮), 봉림대군(鳳林大君)과 함께 강화로 피난하였다. 그 후 강화가 체결되고 돌아오는 중에 왕후의 신위 하나를 분실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앞서 윤방은 청군이 강화도에 상륙하여 약탈을 일삼게 되자 밤에 묘우에 모셨던 40여 개

의 신주(神主)를 나누어 담아 땅을 파고 묻어 두었다. 그 다음날 아침 청군이 불을 질러 묘우는 모조리 소실(燒失)되고 말았다. 그 후 남한산성에서 이미 화의를 맺고서 청군이 빈궁과 대군을 맹약(盟約)의 장소에 모이게 할 것을 요구하자 묻어두었던 신주를 꺼내어 두 명의 노복(奴僕)으로 하여금 짊어지고 가게 하다가 길에서 말을 얻어서 그 위에 싣고 가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도에 머물러 있던 오랑캐 군사들이 재물을 약탈하는 바람에 공사(公私) 간에 숨겨 보관해 두었던 물건들이 모두 파헤쳐지게 되었다. 종묘의 신주가 전후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일발(危機一髮)의 순간이었다. 그 와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왕후(王后)의 신위(神位)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처음에는 신위 전부가 소실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사태가 일단 진정된 뒤에 조정이 뒤바뀌면서 의논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신주 봉안에 잘못이 있었다는 탄핵을 받고 1639년 연안에 유배되었다가 2개월 후 풀려나 다시 영중추부사에 기용되었다.

임종(臨終)할 때에 운방은 의기(意氣)가 편안하고 한가롭기만 하였으며 사적(私的)인 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몸소 '낙천지명 승화귀진(樂天知命乘化歸盡)'이라는 여덟 글자를 썼는데, 자획(字畫)이 평상시처럼 생동감이 있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리에 누워 운명하였다. 그의 나이 78세였다.

이식은 운방의 풍모와 행적을 「신도비」의 말미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은 얼굴이 넓적하고 체구가 우람한 데다 온몸에서 덕기(德氣)가 흘러 넘쳤으므로, 사람들이 공을 바라보기만 해도 공이 대인(大人)이요 장자(長者)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지극한 성품으로 순후하고 근실하여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없었으며, 관직 생활을 하며 일을 처리할 때에도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경계(境界)를 두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소리에는 결코 현혹되는 법이 없었다.

공은 풍도(風度)가 중후하고 심원하였으며, 기빠하고 성내는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 보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종신토록 옆에서 모신 자도 공이 급하게 말을 하거나 야비한 언사를 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며, 비록 느닷없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항상 평소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공의 덕량(德量)과 기국(器局)을 우러러 사모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공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공이 정승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로 말하면, 그야말로 난세(亂世)를 평정하고 새로운 개혁 정치를 행하려던 때였다. 그래서 훈신(勳臣)과 명사(名士)들이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하고 있었고, 여러 대신(大臣)들도 이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공은 오직 성심(誠心)으로 대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쪽에 가담하였을 뿐, 편당(偏黨)을 지어 따르는 일은 결코 없었기 때문에, 여론에 막히는 일이 없는 가운데 모두들 공을 모시고 일하기를 즐겨하였다.

공은 집안에서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였다. 부모의 안색을 살피며 아버이를 극진히 봉양하였는데, 일찍이 아버지의 병환을 간호할 적에는 옷을 그대로 입고 허리띠를 풀지 않은 것이

거의 1년이나 되기도 하였다.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내외의 친척에 이르기까지 무척이나 집안이 성대하였는데, 공은 치우침이 없이 두루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어느 집을 막론하고 모두 공을 의지하며 귀의하였다.

공은 세 차례나 중국에 다녀왔는데도 돌아오는 보따리 속에는 중국 물건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으며, 조정에 몸담은 50년 세월 동안 여러 번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였는데도 끝내 전장(田庄) 하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집에는 사방에 벽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을 따름이었으며, 의복(衣服)이나 기용(器用)을 보아도 검소하기가 마치 빈한한 선비의 생활을 연상케 하였다. 이처럼 청렴결백한 절조가 당대에 둘도 없을 정도였는데도, 정작 공은 털끝만큼도 자궁(自矜)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윤방의 중후한 인품과 지극한 효성이 손에 잡힌다.

저서로는 『치천집』이 전한다.

## 윤원거(尹元擧, 1601-1672)

선병삼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성리학과 예학을 전습하였다. 『국조인물고』에는 당질인 윤拯(尹拯, 1629-1714)이 쓴 윤원거의 행장이 실려 있는데, “을축년(乙丑年, 1625년 인조 3년)에는 종형 동토(童土, 윤순거(尹舜擧))공과 함께 사계(沙溪) 김 선생(金先生)의 문하에 종유(從遊)하였는데 김 선생이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해주었다.”라고 적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해주었다’는 말은 사제의 연을 맺었다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 이는 아마도 윤원거가 이미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즉위년)에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자 비로소 과거에 응시하여 초시(初試)의 초종장(初終場)에는 합격하였으나 때마침 할머니인 경 부인(慶夫人)의 상을 당하여 복시(覆試)에는 응시하지 못했던 것을 상고하자면, 윤원거의 공부가 이미 틀이 잡혀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자는 백분(伯奮)이고 호는 용서(龍西)이다. 시강원필선 윤전(尹焯)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해평윤씨(海平尹氏)로 첨지(僉知) 윤환(尹晄)의 딸이다.

윤원거의 외조부인 첨지공 윤환은 바로 해평윤씨의 형제 재상으로 유명한 윤두수, 윤근수 형제 중 동생인 윤근수의 장남이다.

윤원거의 조부인 윤창세(尹昌世)는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대사간공 윤황(尹煌)이 둘째이고, 시강원필선 윤전(尹焯)은 셋째로 윤원거의 부친이다. 윤황은 창녕 성씨(昌寧成氏)를 배필로 맞이했는데 바로 우계(牛溪) 성훈(成渾)의 딸이다. 윤황의 아들 6형제는 윤훈거(尹勳擧), 윤순거(尹舜擧), 윤상거(尹尙擧), 윤문거(尹文擧) 윤성거(尹成擧), 윤선거(尹宣擧)이며 윤성거는 장가들기 전에 죽었다. 행장을 지은 윤증은 윤선거의 아들로 윤원거에게는 종질이 된다. 윤증은 을축년에 윤원거가 김장생의 문하에 종형인 윤순거와 같이 출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사촌 간에 학문적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자(正字) 권경(權敬)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권경(權敬)은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의 사위이다. 윤원거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장이 뛰어나 이수광(李睟光)의 칭찬을 받았다.

윤증의 「행장」에 이수광이 윤원거의 재주를 높이 산 내용이 나온다.

지봉이 선생의 재명(才名)을 듣고 시험해 보고 싶어서 운(韻)을 부르고 하늘로 시제(詩題)를 삼으니 선생께서 일어나서 즉시 대답하기를, “조화의 성쇠는 초목으로 알고, 음양의 개합은 곤충으로써 알도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조석간의 일이나 성도는 길이 존재하여 시종이 없다오.”라고 하니 칭찬하기를, “이치에 통달한 말이다.” 하였다.

1633년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해 1635년 성균관재생으로 들어갔다. 이 때 이이(李珣)·성훈(成渾)의 문묘종사운동에 참여하여 그 반대자들과 논쟁을 벌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주전론을 제기했으나 아버지가 강화도에서 순절한 뒤에는 일절 국사를 논하지 않고 재야에 은거,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1658년(효종 9)부터 학문과 덕행으로 추천되어 공조좌랑·정랑·종부시주부·성균관사업·사헌부지평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1660년 복제예송(服制禮訟)에서 남인 권시(權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송시열(宋時烈) 일파의 비난을 받았다. 질부인 윤증의 처가 권시의 딸이다. 1661년부터 여러 차례 사헌부장령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670년 세자시강원 진선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상소를 올려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를 논하였다. 그 요지는 출선수범·입지·정심(正心)·면학·흠민(恤民)·근검절약·무사봉공 등이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청요직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산(尼山)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윤순거(尹舜舉)·윤문거(尹文舉)·윤선거(尹宣舉) 등의 종형제와 학문을 연마하고 후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윤증은 행장에서 “선생(윤원거)은 동토(윤순거)와 석호(윤문거) 양공(兩公) 및 우리 선자(윤선거)와는 형제이면서 친구처럼 지냈다. 매양 서로 만나면 즐거이 연마하여 낮과 밤을 지새우면서도 피로한 줄을 몰랐는데 성정(性情)과 심의(心意)의 오묘함과 일용(日用) 사물의 떳떳함에서부터 세도승강(世道升降)의 기수(氣數)와 국가 치란(國家治亂)의 원인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강토(講討)하지 않음이 없었고 때로는 위연(喟然)히 삼대(三代, 하·은·주를 가리킴) 이상으로 만회(挽回)하려는 상념(想念)도 가졌었다.”라고 적고 있다.

윤증은 윤원거에 대한 각별한 정의를 「행장」에서 밝히고 있다. ‘윤증(尹拯)이 볼품이 없는 데도 윤원거가 자식같이 사랑해 주었고, 매번 찾아가면 환한 표정으로 회포를 열었고, 물러나오면 반드시 쉬어 가라고 재삼 명하였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얼굴 모습이나 말소리가 마치 어제의 일 같은데 세상을 떠난지 벌써 12년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아쉬운 심사를 토로하고 있다.’

윤증은 윤원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한다.

선생은 천품이 고매하고 욕심이 없어 명리(名利)와 분화(芬華) 및 일체의 세상사를 담박(淡泊)하게 간과(看過)하였으며 심지어 영욕(榮辱)·훼예(毀譽)·화복(禍福)·우락(憂樂)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마음에 동요되는 바가 없었다. 평거(平居)에도 마음이 즐겁고 화평(和平)하여 질언(疾言)과 거색(遽色)을 하지 않았고 대인(待人) 접물(接物)에는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고 꾸미는 바가 없었으며 마음이 탄탕(坦蕩)하고 논의(論議)가 통쾌(痛快)하여 표리(表裡)가 여일하고 물아간(物我間)에 간격이 없어 구인(藎人, 옹졸한 사람)이나 소부(小夫)가 왕왕 곁에서 몰래 비웃어도 스스로 그 마음의 한계를 엿보기 어려움을 알지 못하였다. 지취(旨趣)가 고상하여 사물에 부딪치고 구경거리에 접하고 하면서 도처에서 우유자적(優遊自適)하였다. 그러나 만년에는 항상 아들들을 경계하기를, “나는 젊어서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여 현허(玄虛)하고 절실하지 않는 데로 치달고 진실되게 공부를 할 수 없어 노년에 이르도록 성취함이 없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절실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대체로 선생은 자[尺]로 재듯 규율(規律)에 얽매이지 않았는데 나의 선자(先子)가 그럴 때마다 공경은 안팎이 없다고 규간(規諫)하면 선생은 좋아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소시에 스스로 힘쓰지 않아 노년에 후회가 있음을 한탄하였다. 때문에 스스로 한 말씀이 매번 이와 같았다.

시울에 격조가 높았으나 저술은 즐겨하지 않았다.  
시문집 『용서문집(龍西文集)』이 전한다.

## 신광묵(辛光默, 1872~1949)

선병삼

18세 때 유인석(柳麟錫)의 제자가 되었다.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은 을미의병의 최고지도자로서 화서학파의 위정척사사상을 위국간난의 때에 온몸을 바쳐 실천하였다. 유인석은 14살 되던 해 족숙(族叔) 유중선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화서 이항로의 문하에서 공부를 시작한다. 당시 화서 문하에는 임규직, 이인구, 이준, 김평묵(金平默), 유중교(柳重敎) 등의 중요 인물들이 운집해 있었고, 훗날 화서학통을 이어받는 김평묵, 유중교로부터 수업을 받았다. 이를 통해 화서학파의 위정척사, 존화양이사상을 체득 존신하게 된다.

1893년 제천 장담으로 이사를 가는데, 양가의 재당숙인 유중교가 1888년 춘천으로부터 이곳으로 이사와 제자를 양성하던 중 1893년 작고하자 유중교가 닦아 놓은 기반을 흡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바로 이곳 제천을 거점으로 의병항쟁을 전개하게 된다.

신광묵은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자작리에서 태어났으며, 18세 때 유인석(柳麟錫)의 제자가 되었다. 1895년(고종 32) 단발령 이후 제천에서 유인석이 이끄는 호좌의진(湖左義陣)이 봉기하였을 때 참여하였고, 1907년(순종 1) 군대 해산 이후에 이강년(李康季)이 다시 의병을 일으키자 좌종사의 직책을 띠고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듬해 이강년이 순국한 후에는 그 시신을 제천으로 반장(返葬)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이후에는 고향에 은둔하여 10여 년간 제자를 가르치며 항일 사상 교육을 하였다. 1917년 여름 단양경찰서에 붙잡혀 20여 일 동안 문초를 받기도 하였다. 그때 만아들 신재교가 옥바라지를 하였는데, 부친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귀가한 후 그 충격으로 피를 토하고 10여 일 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만년에는 향리에 칩거하였다.

유집으로 『학습재집(學習齋集)』이 전하는데, 권3의 「동방용하설(東方用夏說)」과 「척화설(斥和說)」에는 존화양이적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유집은 한말 의병이며 문인이었던 신광묵의 학문과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문집』에 수록된 서간문, 잡저, 제문 등을 통해 제천 화서학파의 동향을 살필 수 있다.

## 신재철(愼在哲, 1803~1873)

선병삼

송내희(宋來熙, 1791~1867)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금곡(錦谷) 송내희는 본관은 은진(恩津)이며 1838년(헌종 4) 경연관(經筵官)에 임명된 이후 사헌부의 장령(掌令), 집의(執義) 등을 거쳐, 뛰어난 학행을 인정받아 1853년(철종 4)에 성균관좌주(成均館祭酒)에 천거되었다. 부호군(副護軍)을 거쳐 1857년부터 10년 가까이 대사헌을 여러 차례 지내고 뒤에 찬선(贊善)에 이르렀다.

송암(松菴) 신재철(愼在哲)은 강원감사 신희남(愼喜男, 1517-1591)의 9세손으로 본관은 거창(居昌)이다. 장헌주(張憲周), 기우만(奇宇萬) 등과 교류하였고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의 아들인 최영조(崔永祚)가 사위이다. 신재철은 향교 명륜당에서 18년 동안 한학을 강하였고, 설악재(說樂齋)라는 서당을 건립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유집으로 송암유고(松菴遺稿)가 전하는데, 손자 신종봉(愼宗鳳)이 편집해놓은 것을 1963년 증손 신문성(愼文晟)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최익현(崔益鉉)의 서문이 있다.

시는 「입춘(立春)」「한식(寒食)」「제석(除夕)」 등 계절에 관한 것, 「우음(偶吟)」「자탄(自歎)」 등 사상에 관한 것, 「독논어(讀論語)」「독심경(讀心經)」 등 학문에 관한 것, 「계주(戒酒)」「성경(誠敬)」 등 수신에 관한 것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서(書) 중 「상금곡선생(上錦谷先生)」은 송내희(宋來熙), 「상노사기장(上蘆沙奇丈)」은 기정진(奇正鎭)과 학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잡저 중 「탄세설(歎世說)」은 명(明)나라가 망하고 오랑캐가 중국을 통치함을 탄식하면서 송시열(宋時烈)의 존주대의(尊周大義)를 찬양한 글이다.

「한거잡록(閑居雜錄)」은 학행·태극·명덕·학술·사제 등에 대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며, 「예설문답(禮說問答)」은 주로 상례에 대하여, 「제의(祭儀)」는 제사지내는 방법과 절차를 적은 글로서 참고자료가 된다.

「천열부이씨장(薦烈婦李氏狀)」은 소년과부가 되어 남편의 뒤를 따라 음독자살한 이유혁(李儒赫)의 아내 광산이씨(光山李氏)의 포상을 건의한 것이다.



## 안택환(安澤煥, 1844~1917)

선병삼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송병선은 송시열(宋時烈)의 9세손으로 1905년 을사늑약에 비분강개하며 스스로 자결한 순국지사이다. 그는 송시열 - 권상하 - 한원진 - 송능상 - 송환기, 김정묵 - 송치규 - 송달수, 송근수 - 송병선, 송병순으로 이어지는 학맥의 계승자이다.

송병선은 국운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선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세를 이루고, 사상적 무장을 확대하고자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이를 위하여 유림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조선을 사상적으로 지탱해 온 성리학적 유교질서를 전파하고, 정신적 무장을 강조하면서 진취적인 기상을 불어넣었다. 1867년 옥천 이지당(二止堂)에서의 강회활동을 시작으로 기국정, 고암서당 등지에서 강회를 개최하고, 성주의 노강 등지에서 향음례를 행하고, 무주 구천동의 서벽정을 중건하여 강학하기도 하였다.

본관은 죽산(竹山)으로 자는 여은(汝恩)이고 호는 삼희당(三希堂)이다. 은봉(隱峰) 안방준(安邦俊)의 9대손으로 아버지는 안순(安洵)이고 어머니는 수원 백씨(水原白氏) 백진훈(白鎭勳)의 딸이다.

안택환은 자질이 순박하고 성품이 인후하였다. 어려서 백부(伯父) 안숙(安燾)에게 배웠고, 1888년(고종 25)에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98년 4월에 송병선이 월출산과 천관산을 유람할 때 여러 날을 배종하였으며 향음 주례(鄉飲酒禮)에도 참여하였다. 1902년 7월에 최익현(崔益鉉)이 하동 쌍계사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시국의 의리를 강론하였다. 1908년에 송병순(宋秉珣)을 찾아가 몇 개월을 머물며 강론하였고, 만동묘(萬東廟)의 제향에 관한 일을 논의하였다.

유저로 『삼희당유고(三希堂遺稿)』를 남겼으나 아직 간행되지 못하고 초고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 이광수(李光秀, 1873-1953)

선병삼

이광수(李光秀, 1873년 ~ 1953년)는 대한제국의 문신, 정치인이자 일제 강점기의 독립 운동가이다. 조선 왕족의 후손으로 자(字)는 미중(美中), 호는 옥산(玉山), 양녕대군의 17대손이며 추성수(秋城守) 이서(李緒)의 14대손이다. 본관은 전주이다.

1900년(광무 4)에 관직에 제수되고 가자(加資)를 받아 통훈대부 당하관 정3품에 올랐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그는 을사조약 체결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활 잘 쏘는 사람 수십 명을 모집하여 대궐 근처에 숨어 있다가 5적(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을 대궐 문밖에서 쏘아 죽이려 하였으나 5적 중 권중현(權重顯)을 쏘다가 놓쳐버려 실패하고 왜군에 붙잡혀 진도로 정배되어 1년 후에 풀려났다.

1919년 3·1 운동 때에도 참가했으며 그와 함께 가담했던 동지인 양한묵(梁漢默)은 감옥에서 죽었다. 조선총독부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 회유하는 한편 전라도 관찰사를 제수토록 하였으나 친일파와는 같이 일할 수 없다 하여 거절하였다. 그 뒤 고종 태황제와 순종 융희 황제의 인산에 차비관(差備官)을 지냈다.

유저인 『옥산집(玉山集)』은 1962년 아들 혁(赫)이 편집 간행하였다.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鈺)의 서문과 행주(幸州) 기노장(奇老章)의 발문이 있다.

「정미의소(丁未擬疏)」는 1907년 자신이 왜적을 토벌하고 5적의 주륙(誅戮)을 계획하여 성사시키면 상소하려고 작성한 글이다. 일이 여의치 못하자 일본은 불에 태워버렸는데, 이것은 신채호(申采浩)가 외워서 기록한 것이다.

서(書)는 기우만(奇宇萬)·신기선(申箕善)·이용직(李容植)·이종문(李種文)·이도재(李道宰)·정만조(鄭萬朝)·윤용구(尹用求)·이항선(李恒善)·민형식(閔衡植)·윤희구(尹喜求) 등 당대의 명류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학문과 국사를 논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서(序)에는 기우만이 삼산(三山)에서 지은 급문록(及門錄)의 서문인 「삼산채산록서(三山採山錄序)」를 비롯하여 「별송양여사훈서(別崧陽呂士薰序)」 등이 있다. 기에는 아버지 최선(最善)이 훈학(訓學)하던 대(臺)의 기문인 「명농대기(明農臺記)」와 「초현당기(招賢堂記)」·「면양정중수기(俛仰亭重修記)」·「유금강기(遊金剛記)」·「도남재기(道南齋記)」 등이 있다.

설에는「삼호설(三乎說)」·「회산설(晦山說)」·「회봉설(晦峯說)」·「내와설(耐窩說)」 등 호설(號說)과 「문여자설(閔汝字說)」·「반신농산저의설(反申農山沮義說)」 등이 있다. 전에는 송범진(宋範鎭)의 「송효자전(宋孝子傳)」, 조규현(曹奎鉉)의 「조의사전(曹義士傳)」 등이 있다. 그밖에 「박효자사실(朴孝子事實)」·「나열녀전(羅烈女傳)」 등이 있다.